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korean.com
Diana Park, Inc.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소수민족들의 축제 위아보스톤 갈라 성황

뉴보스톤니안 한자리에 모여
끈끈한 네트워킹 형성
엄 총영사 및 부총영사 참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시에서 주최한 위아보스톤(We are Boston) 갈라 행사가 지난 8일 월요일 보스톤 컨벤션 엑시비션 센터(Boston Convention Exhibition Center)에서 열려 700여 명의 소수민족 시민들이 참석했다.

9번째 연례행사로 개최된 이날 축제는 보스톤 소수시민을 격려하고 민족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지난해 천여명이 참석한 데에 비해 올해는 비교적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시선을 끄는 이색 공연과 세계 각국의 음식이 뷔페 형식으로 제공되어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특히 주 보스톤 총영사관의 엄성준 총영사와 박윤주 부총영사가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위아보스톤 행사에 처음 참석한다는 엄 총영



부임 후 첫 위아보스톤 갈라 행사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마틴 월시 시장

사는 “훌륭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지만 한인은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임 후 첫 위아보스톤 행사를 기획한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은 “나의 부모님 또한 아일랜드 이민자였다”는 인사말을 전해 이민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뉴보스톤니안, 즉

보스톤의 이민 커뮤니티는 경제 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다. 문화, 교육,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매년 위아보스톤 갈라 행사에는 이민사회의 경제, 복지, 문화, 교육 등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리더십 어워드를 시상한다. 올해는 최초 여성으로 대법원장을 역임했던 마가렛 마샬이

▶▶5면으로 계속

아듀 2014

〈연말 이벤트〉 독자가 뽑는 올해의 한인사회 10대 뉴스

추첨을 통해 8명 선정, 아이패드 미니 등 푸짐한 상품 증정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통해 참여 가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코리아가 ‘올해의 한인 10대 뉴스’를 독자와 함께 선정기로 했다. 매년 한해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한인 10대 뉴스를 선정해 왔던 보스톤코리아는 올해 특별히 독자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이에 따라 푸짐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색적인 이벤트를 기획했다.

‘독자가 뽑는 한인사회 10대 뉴스’는 2014년 보스톤코리아에서

보도된 한인사회 및 로컬 뉴스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나 화제가 되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뉴스를 독자가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최소 두 개의 뉴스를 골라 보스톤코리아 이메일(bostonkorean@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정한 이유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이메일 당 한 회의 응모만 가능하다. 이벤트 마감은 17일 수요일 오후 5시로 당첨자 발표는 19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벤트에 참여한 독자 중 편집부와 기자단에서 선정한 8명에게는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Japantravelinfo.com

IACE TRAVEL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Korean Line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에나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s: 콘도

- Brookline, MA, 방 2, 화 2, 1523 sq., \$725,000
- BU, Coolidge Corner에서 도보 거리
- 햇빛 잘드는 실내, 벽난로, 불박이 책꽂이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창조경제 포럼, 창업 활성화 위한 세대간의 화합 필요성 강조

2세대의 변화와 혁신에 1세대가 적극 도와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주 보스톤총영사관이 주최한 제2회 창조경제 포럼이 지난 9일 화요일 뉴튼 소재 크라운 플라자 보스톤 호텔에서 열렸다.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과 과학기술단체 대표들 10명이 패널로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8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한인사회 경제와 창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엄성준 총영사는 행사에 앞서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1부와 2부에서 모든 패널들은 창조경제의 활성화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를 손꼽았다.

이날 포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이슈는 한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들 간 세대교류의 중요성이었다. “1세대가 과연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2세대의 혁신을 유연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가”라고 한 1.5세 한인이 던진 질문에 패널들은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성껏 답했다.

서혁진 삼성 벤처 이사는 “1세대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의 소규모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2세대는 주로 대규모 ‘벤처 비즈니스’를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경험과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얼마든지 벤처 비즈니스로 자랄 수 있다. 두 세대간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은 “1세대가 좀 더 열린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며 “시민권 워크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2부의 패널로 참석한 조진행 과학기술협회 회장은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해 “사실 1세대가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2, 3세대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할 때 많은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1부는 안병학 OKTA 보스톤 지회장의 진행으로 ‘한인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패널은 노명호 전 세탁인협회 회장, 서혁진 삼성 벤처 이사,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 진태원 피닉스컴퓨터 대표(뉴햄프셔 전 한인회 회장), 이영호 영컨스트럭션 대표로 구성되었다.

남성한 바이오산업협회(KABIC) 이사가 진행자로 나선 2부에는 김승빈 제약산업협회



왼쪽부터 안병학 OKTA 회장, 노명호 전 세탁인협회 회장, 서혁진 삼성벤처스 대표,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 진태원 피닉스컴퓨터 대표, 이영호 영컨스트럭션 대표

회장, 조진행 과학기술협회 회장, 고종성 바이오산업협회 회장, 선우홍재 NEBS 회장, 황우성 PPCR 디렉터가 패널로 초청되어 ‘벤처 및 창업’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소셜 클럽 고리와 MIT 아시아비즈니스 컨퍼런스에 관해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전한 MIT 경영대학원 백승민 씨는 “자신과 다른 분야의 사람과 교제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오늘 포럼은 다양한 한인 사회의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준비된 식사와 함께 참석자들을 위한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되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론 펌	Iron Perm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론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23일까지 등록해야 내년 1월부터 혜택받아

14만명 가입 불구하고
상당수 한인 아직 미가입
1월 23일까지 등록 시
2월부터 보험혜택 제공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오는 23일까지 헬스커넥터 웹사이트(www.masshealthconnector.org)를 통해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9일까지 총 14만 7천여명의 매사추세츠 주민이 가입 신청을 했지만 정작 상당수의 한인들은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아예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한인이 많다. 심지어 일부 한인들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었다” 라고 대답하는 등 새로운 웹사이트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헬스커넥터의 미디어 디렉터 제이슨 레퍼츠는 “공개가입기간은 2월 15일까지 진행되지만 1월부터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3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고 전했다. 23일을 놓친 가입자는 1월 23일까지 등록하면 2월부터 혜택이 제공된다.



오는 23일까지 헬스커넥터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 신청해야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레퍼츠 디렉터는 가능한 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가입을 권장했다. 연령대가 높은 가입자들은 온라인보다 종이 서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보험가입절차를 지연시키고 복잡하게 한다는 것이 레퍼츠 디렉터의 말이다.

헬스커넥터(Health Connector)는 매사추세츠 주의 오바마케어는 관장하며 보험 거래소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공개가입기간을 위해 새로운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유학생과 단기 비자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모두가 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이번 공개가입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헬스커넥터의 콜센터(877-623-6765)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무료 예방접종 실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새생활 센터(대표 송연호)는 오는 20일 토요일 벌링턴 소재 가족 물리치료 병원에서 올해 마지막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매사추세츠 주민뿐 아니라 방문자에게도 제공되는 이날 서비스는 무료 내과 진료와 치과 검진 및 건강 상담이 포함된다. 내과와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하며 치과는 검사 및 예방상담을 한다. 환자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찰을 할 예정이다.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면 정확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다. 더욱 체계적인 건강 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나 체내 체지방검사도 시행한다.

문의는 보스톤새생활 센터의 송연호 대표 (317-374-4786)에게 하면 된다.

진료일정

일시: 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가족 물리치료 병원(GB Family Physical Therapy)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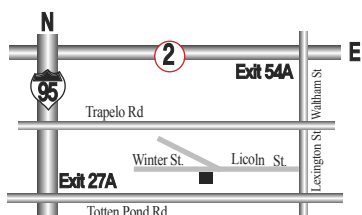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v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한국문화, MIT 행사 통해 인기 실감



세계적인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에게 알리는 한국문화 530여명 참석 성황, 외국인 학생들 반응 뜨거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MIT 경영대학원(Sloan)이 주최한 한국 문화의 밤 (Korean C-Function) 행사에 537명이 참석해 예년과 같은 성황을 이뤘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4일 목요일 MIT 워커 메모리얼(Walker Memorial) 홀에서 열린 이날 참석자의 대부분은 MIT 경영대학원의 외국인 학생들이었지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등의 주변 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석해 한국 문화에 외국인들의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다.

행사의 총괄을 맡은 주상우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한국문화를 더 알릴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싶다” 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주 씨는 이어 “600여명을 위한 전문적인 이벤트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20여명의 슬로언 한인 학생회 멤버들이 발벗고 나섰다” 며 “학업과 바쁜 일정 가운데 이런 대형 행사를 소화해 내기가 많이 힘들었다” 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한인으로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멤버들 모두 감사함을 느낀다.

다. 준비한 ‘잔치’ 에 참석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움 뿐이다” 라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뿌듯함도 함께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물놀이 공연, 한복 패션쇼, 아카펠라, 케이팝 댄스 경연대회 등의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된 행사” 라는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비빔밥, 불고기 등의 한식 메뉴가 뷔페 형식으로 제공되어 한식을 알리는 기회 또한 제공되었다.

행사의 꽃은 단연 한복 패션쇼였다.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20여명의 모델들은 왕, 왕비부터 무관 복장까지 다양한 컨셉의 한복을 소화하며 무대를 장악했다.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 세 팀의 케이팝 댄스 무대가 진행되었는데 두 순서 모두 외국인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준비된 것

“한복 모델과 댄스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했다” 며 한국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MIT 전체의 잔치가 열렸다는 것이 주 씨의 말이다.

한편, 올해 행사는 스폰서십이 쉽게 구해지지 않아 자금 마련과 행사 기획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학생회 측은 전했다. 펀드레이징을 통해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결국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국문화를 체험하러 온 학생은 무려 530여명. 지난해 560명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인원이다.

주 씨는 “열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며 “보스톤 한인 커뮤니티의 응원과 관심은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고 전했다.

이날 한국 문화의 밤 행사는 500인분의 비빔밥을 저렴하게 제공한 H마트 벌링턴 지점과 한

복 10여벌을 무료로 대여해 준 뉴욕문화원의 후원으로 열렸다.

지난 11월 180여장의 티켓이 10초만에 매진되어 화제가 되었던 바비큐 나잇은 한국 문화의

▶▶5면으로 계속



(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한복 패션쇼 모델들, (아래) MIT 경영대학원 한인 학생회 주최의 한국문화의 밤 행사가 지난 4일 열려 530여명이 참석했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แนкс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스폰서 부족으로 규모 줄이려는 노력 불구하고 대규모 행사 치러

▶▶4면에 이어서

밤 행사와 더불어 MIT 슬로언의 한국 알리기의 일환으로 열렸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100여명의 슬로언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해 각종 정부기관, DMZ, 기업, 관광지 등을 둘러보며 한국문화와 비즈니스를 경험하는 코리아 트랙(Korea Trek)이 기획되어 있다.

지난 3월 코리아 트랙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불리아 출신 아타나 별지스키 학생은 “한국 방문은 MIT에서의 최고의 경험으로 손꼽는다.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 고 전했다. 이어 “한국 문화의 밤 행사는 내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을 MIT 커뮤니티와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굉장한 이벤트” 라고 극찬했다.

MIT 슬로언 한인 학생회 행사의 스폰서십에 관심 있거나 행사에 대한 추가 문의는 학생회 이메일(mit-sloankoreaclub@gmail.com)이 나 주 상 우 씨 (swjoo@mit.edu)에게 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외국인 학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은 사물놀이 공연

이민사회 네트워킹의 장 마련돼, 한인들의 참석도 높아야

▶▶1면에 이어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자라 하버드와 예일에서 학위를 마친 그녀는 아프리카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가능케한 인물이다.

이외에도 이민 커뮤니티의 시민권 획득에 도움을 준 굿윈프록터 로펌(Goodwin Procter LLP), 라틴계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라파엘 바에즈 학생 등이 이날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편, 중국 어린이 무용단 엔젤 댄스 스쿨(Angel Dance School)과 카메룬 전통 댄스를 선보인 싱고 댄스 트루프(Singo Dance Troupe)이 올해 위아보스턴 갈라 무대를 꾸몄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선 리셉션에서는 소시대드 라티나(Sociedad Latina)의

고등학생들이 밴드 연주를 선보였다.

이날 참석한 중국인 창업가 제니스 류는 “보스턴은 이민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며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 이민사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발돋움해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위아보스턴 갈라 행사에 참석한 엄성준 총영사(오른쪽)와 박윤주 부총영사

독자 8명 선정 후 아이패드 미니 등 푸짐한 상품 증정

▶▶1면에 이어서

푸짐한 상품이 제공된다. 1등(1명)에게는 아이패드 미니가 증정되며 2등(2명)은 \$50 상품권, 3등(5명)은 한국산 배 한 박스가 증정될 예정이다. 상품은 보스턴코리아 사무실(161 Harvard Ave. Suite 131, Allston, MA 02134)에서 받아가면 된다.

올해의 주요 뉴스로는 세월호 사태 관련 한인회장들의 성명서 및 보스턴 주부들의 항의 시위(5월), H마트 캠브리지점 개장(4월), 송강호 주연 ‘변호인’, ‘명량’, ‘군도’

등의 한국영화 보스턴 극장 진출, 해외 금융 자산 신고(3월), 박강호 총영사 고별 및 엄성준 총영사 부임(3월), 이승철 콘서트(11월), 한인 3세 대니얼 고 월시 시장 수석 보좌관 임명(1월) 등이 있다.

지나해 1위로 선정된 뉴스는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으로 이는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안겨준 톱 뉴스였다. 한편, 한인사회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유 일한 한인 피해자인 안동식 군에게 성금을 전

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테러에 대한 충격뿐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감동을 전한 뉴스가 당연히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한인회 회비 납부 회원 1,000명 달성, 한인문화단체의 다양한 문화 행사, 오바마케어 가입 웹사이트 소동, 한인 비즈니스 개업 풍년 소식이 잇따라 순위의 상위권을 장식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고르기 생나무? vs. 플라스틱 트리?

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인공트리보다 생나무가 3배 이상 팔린다. 아직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입하지 않아 선택의 기로에 놓인 독자들을 위해 가격과 관리 및 유지 등 다양한 면에서 이 둘을 비교해본다.

▶가격

굳이 비교해 보자면 가격면에서는 매년 새로운 나무를 구매해야 하는 생나무보다 평균 6~9년 동안 재활용하는 인공트리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크기와 종류별로 다르게 홈디포(Home Depot)에서 6.5피트의 인공트리는 \$85에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높이의 생나무는 \$150에 판매되고 있다. 생나무 트리를 구매할 경우 스탠드도 함께 구매해야 한다.

한편, 노스 앤도버 소재 스몰락 농장에서 \$69에 직접 나무를 베어올 수 있다. 미리 구비된 나무는 크기별로 \$49에서 \$130에 판매하고 있다. 농장에서 나무를 직접 구매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겠다.

스몰락 농장(Smolak Farm)

315 South Bradford Street, North Andover, MA 01845

978-682-6332, smolakfarms.com

▶관리 및 유지

인공트리의 경우 전구가 이미 설치된 제품(Pre-lit)이 많다. 설치할 때에도 부품을 조립하면 되므로 설치 작업이 생나무보다는 훨씬 간편하다. 하지만 박스에 넣고 빼는 것을 수 차례 반복할 경우 트리의 모양이 망가질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일년 내내 박스에 담겨 창고신세를 진 트리는 먼지를 털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트리가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세기로 청소기를 사용하면 된다.

생나무를 구입할 경우 주기적으로 물받이에 물을 공급해주어야 생생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잎이 말라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 깔개(Skirt)를 깔아주어야 한다.

▶분위기

생나무에서 은은하게 나는 송진냄새는 많은 사람들이 생나무를 고르는 이유 중 하나다.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면 2달 정도 세워놓는데 이 기간 동안 집에서 나는 향긋한 나무 향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무엇보다 이 향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를 지녔다고 하니 여러모로 이로운 점이 많다.

이 외에도 생나무는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며 자칫 건조할 수 있는 실내에 습기를 제공한다. 시즌이 지나 트리를 처분해야 할 때에 가지의 일부를 이용해 앤틱한 장식품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손재주가 있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턴코리아) 유대인 기자 =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트리 장식이다. 환하게 켜진 오색의 전구와 주렁주렁 매달린 장식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든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 트리를 설치하고 꾸미는 작업이 어른들에게는 다소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것도 없을 듯하다.

생나무와 인공트리 중 어느 것이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내며 동시에 실용적인지 매번 고민하게 된다. 많은 한인들에게는 생나무를 집에 들여놓는 것이 생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뉴잉글랜드 지역 동요 합창제 성황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뉴잉글랜드 캠퍼(회장 한순용, 박신영)는 지난 6일 토요일 브록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제13회 동요합창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오전에도 불구하고 뉴잉글랜드 지역 8개 학교 10개 팀 총 20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한인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작년과 달리 시상 없이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합창제에는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우리뿌리 한국학교, 보스턴 장로교회 한국학교, 보스턴 한국학교, 우스터 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중앙교회 한국학교, 북부보스턴 한국학교가 순

서대로 발표했다.

모든 발표를 마친 후에는 산타클로스가 깜짝 등장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참가한 모든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포토 타임이 이

어졌다.

다음 협의회 행사로는 내년 3월 7일로 계획된 교사 연수회 및 사은회가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6일 열린 뉴잉글랜드 지역 어린이 동요합창제에 10개의 어린이 팀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산타의 깜짝 등장과 태권도 시범도 이어졌다.



제1회 총영사배 태권도대회 한미 문화교류의 장 마련

매사추세츠 태권도 협회 주최
태권도 통한 한미 문화교류
증진 기대해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 보스턴 총영사관(총영사 엄성준)과 매사추세츠 주 태권도협회(회장 정제형)가 주관한 제1회 총영사배 태권도대회가 지난 6일 토요일 열렸다.

월덱에 위치한 헨리 휘트모어(Henry Whittemore) 초등학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매사추세츠 주 지역 10여개 태권도 도장에서 출전한 100여명의 선수단, 학부모, 관중을 포함해 300여명이 자리를 메웠다.

엄성준 총영사는 환영사를 통해 “태권도는 몸과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가 큰 한국의 전통 무술”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간 문화교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

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제형 회장은 선수 및 가족들의 참석과 총영사관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대회는 품새와 겨루기 등의 부문에서 나이와 수준별 시합 순서로 진행되었다. 매사추세츠 주 지역 태권도관장과 사범들이 태권도 관련 강의도

제공했다.

총영사관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태권도를 홍보하고 미국 태권도 동호인 가족을 포함한 보스턴 지역 태권도인들의 단합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총영사관과 매사추세츠 주 태권도협회가 공동주관한 태권도대회가 지난 6일 토요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보스턴 산악회 송년산행 공지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산악회가 연말을 맞아 오는 20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라파예트 산(5260피트)으로 송년산행을 떠난다.

이날 산행은 A와 B, C조로 나뉜다. A와 B조가 정상왕복(8마일), C조가 8부능선의 그린리프 헛을 왕복하는 트레일(5.8마일)로 가게 된다.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으로 각각 4와 3이다.

준비물은 배낭과 아이젠, 스패츠, 방한복, 방풍의, 장갑, 털모자, 스틱, 식수, 간편 중식이다. 등산화 착용은 필수며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운 겨울철에는 아이젠(마이크로스파이크 또는 크램폰)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산행 당일 집결은 올스톤 공영주

차장에서 오전 6시 15분이며 파크라이드(Park&Ride, Exit 2 of RT93)에서 오전 7시까지다. 회비 20불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1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시 원하는 조와 집결 장소, 차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산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턴 산악회 카페(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617-780-5711로 하면 된다.

산행공지

일시: 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집결지: 올스톤 공영주차장(오전 6시 15분), Park&Ride, Exit 2 of RT93(오전 7시)

dyoo9146@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 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과기협 연말파티 화기애애한 시간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 과학 기술자 협의회 뉴잉글랜드 지부(회장 조진행)가 지난 6일 토요일 베드포드 소재 밤부 레스토랑에서 연말파티를 개최했다.

과기협 회원들과 가족을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지난 1년간의 활동들과 앞으로 있을 행사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어 전임회장에게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수여자 이재형).

식사 후 회원들은 년센스 퀴즈를 맞추기, 테이블 별로 삼행시 짓기, 이름 잇기 등의 게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함께 참석한 아이들도 간단한 수학문제를 푸는 퀴즈에 참여하며 맞춘 학생에게

는 과기협 측에서 준비한 선물이 증정되었다.

과기협의 다음 행사로는 내년 3월에 개최될 심포지엄과 4월 18일에 열릴 수학 경시대회 등이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 준비된 다양한 행사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과기협 연말파티가 지난 6일 열렸다

다. 내년 행사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seane.org)에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이메일(contact@kseane.org)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협연

첼리스트 여미혜 같은 무대 서한인 연주자 자부심 우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 재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학생이 지난 7일 일요일 보스톤클래시컬 오케스트라 영 아티스트 콩쿠르에서 우승을 따냈다. 이로써 오는 14일 보스톤클래시컬 오케스트라와의 모차르트 협연을 펼치게 된다.

양 씨는 지난 10월 뉴욕에서 열린 CAG 빅터 엘말레 콩쿠르(Victor Elmaleh Competition)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한인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외에도 올해 영 바이올리니스트에 후디 메뉴인 콩쿠르(Yehudi Menuhin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Young Violinists) 2위, 2012년 독일 하노버 요아킴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Joachim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4위 등의 화려한 경력을 뽐낸다.

한편, 이날 무대에는 첼리스트 여미혜 씨가 하인첸 첼로 협주곡 D장조를 선보이며 한인 연주자들의 활약이 한층 돋보이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첼리스트 여미혜의 연주는 오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퍼네일 홀(Faneuil Hall)에서 열린다. 티켓 문의는 보스톤 클래식 오케스트라 웹사이트(www.bostonclassicalorchestra.org) 혹은 전화(866-811-4111)로 하면 된다.



첼리스트 여미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씨의 연주회가 오는 14일 퍼네일 홀에서 열린다

푸시카트 문학상 수상자 산드라 림 시낭송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시집 '야생(Wilderness)'의 저자 산드라 림의 시낭송 행사가 오는 14일과 21일 각각 콩코드 도서관과 브룩라인 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 이후에는 북사인회와 리셉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림 씨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올해 출판된 '야생'과 '사랑스러운 기괴함(Loveliest Grotesque, 2006)'이 있다. '사랑스러운 기괴함'은 비평가들로부터 "자아와 세상의 경계선을 찾아 풍부한 자연 속을 헤매는 시"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문학작품에 수여하는 푸시카트 문학상(Pushcart Prize)의 2015년 수상자로 선정된 림 씨는 한인 2세 시인으로 보스톤에서 주활동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버나드 여성 시인상

(Barnard Women Poets Prize), 코어 프레스 퍼스트 북 어워드(Kore Press First Book Award) 시 부문에서 수상해 미국 내 한인 여성 시인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란 림 씨는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 현재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로웰(UMass Lowell)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콩코드 도서관(129 Main Street, Concord, MA 01742)

일시: 2014년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브룩라인 공공도서관(361 Washington Street, Brookline, MA 02445)

dyoo9146@bostonkorea.com



'야생', '사랑스러운 기괴함'의 저자 산드라 림 유매스 로웰 교수가 14일과 21일 시낭송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기사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bostonkorean@hotmail.com, 617-254-4654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4불로 중국식당 소송 위협

웹사이트 오래된 가격과 실제가격 차이 나자 소비자 기만이라며 위법 강조

브루클라인 보스턴 한인교
회 바로 인근 시찬가든

매니저의 예의를 잃지 않은
차분한 대응이 하버드 교수
와의 논쟁에서도 승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중국식당에서 테이크 아웃 음식에 4불 더 부과한 것을 두고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가 보상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해 SNS가 들끓고 있다.

브루클라인에 거주하는 벤자민 에들먼 하버드 경영대학원 부교수는 브루클라인 소재 시찬가든에서 4종류의 배달음식을 시켰다가 웹사이트에 기재된 가격보다 1불씩 더 부과돼 총 4불이 더 부과된 것을 알고서는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시찬 가든 소유주의 아들이자 유명 바텐더인 랜 두안은 이메일을 받은 후 20분이 경과된 후 사과와 함께 웹사이트에 가격이 상당히 오래 전에 올라간 것이고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새롭게 작성된 메뉴를 이메일하겠다고 답했다. 두안은 또 웹 가격보다 더 부과된 4불에 대해서 반환하겠다고 답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에들먼 교수는 즉각 이메일로 “광고는 저렴하게 하고



웹사이트 가격을 업데이트 하지 않아 곤욕을 치르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시찬가든

가격부과는 다르게 하는 심각한 위협”이며 브루클라인 타운에 전화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잘못된 가격홍보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 주장하고 주법에 따라 자신이 손해본 금액의 3배인 12불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들먼은 두안에게 적절한 준법기관을 접촉해 지금까지 웹사이트를 보고 주문했다가 1불씩 더 부과된 모든 소비자를 밝혀내고 이들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두안은 12불을 부담하겠다고 말하고 ‘구멍가게’ 수준에서 웹사이트를 적절하게 바꾸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웹 디자인 업체와 연결이 됐으며 이를 즉각 업데이트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운에서 벌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메일이 계속되면서 60불에 약간 못미치는 금액의 음식을 주문했던 에들먼은 결국 음식값의 절반을 할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두안은 결국 전체 금액의 50%를 돌려주기로 답했다.

에들먼 교수와 두안의 이메일 교환 중 두안은 끝까지 정중한 예의를 지켜가며 답했으며 언제든지 보상하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그는 에들먼에게 다른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 금액과 다른 금액을 부과하지 않았고 다만 오래된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가격이 과거의 가격일 뿐이라며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다” 고 말했다.

두안은 에들먼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에 “아주 똑똑한 사람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들

에들먼 교수, 그는 누구인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중국 주문음식에 4불이 더 부과됐다고 소송 이야기가 지 꺼내며 협박한 에들먼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부부 사이에서 유복하게 태어났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에들먼은 13살 때 시간당 \$10불씩 부과하는 컴퓨터 컨설턴트로 일했다.

그는 1998년 워싱턴 DC의 우드로우 윌슨 시니어 하이스쿨을 수석졸업했으며 2002년 하버드 대학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고 2007년에는 하버드에서 경제학 Ph.D.학위를 취득한 수재다.

그는 하버드 대학 2년 때 NFL에서 시간당 \$400을 받고 불법 웹 중계를 감시단속하는 일을 했었다

그는 현재 하버드 경영대학원(HBS)에서 협상, 조직, 그리고 마케팅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또 구글, 뉴욕타임즈 등 수많은 유명회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회사의 불법



행위를 찾아낼 때 그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는 에어비앤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서 숙인호스트들은 흑인이 아닌 호스트들에 비해 더 좋은 방을 유지해도 12%나 요금을 적게 받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중국식당의 4불에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은 그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업무와 일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4세인 에들먼은 브루클라인에 시가 1.25달러인 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일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침을 놓았다.

에들먼 교수는 보스턴 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음식맛은 어때냐는 질문에 “좋았다” 고 밝혔다.

에들먼은 보스턴글로브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이메일을 보내며 “언론의 관심을 끌어 이 중국식당이 지금껏 음식값을 더 부과한 모든 고객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에들먼의 이같은 행위를 즉각 역풍을 몰고왔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보스턴 닷컴의 댓글에서 에들먼을 강하게 비판했다. “엘리트며 학벌이 좋다고 해서 얼간이가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고, 심지어 “하버드는 에들먼 교수를 해고하라” 고 요구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위협받은 시찬 가든에 격려 메일 쇄도

랜 두안 모든 게 업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부터 협박 이메일을 받고 끝까지 정중하게 응대한 시찬 가든의 매니저 랜 두안에게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

랜 두안은 10일 보스턴닷컴에 보낸 이메일 편지를 통해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에는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까지 격려하는 연락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답변하고 감사를 전하고 있다며 여러 사람들이 도네이션, 무료 서비스 그리고 법적 자문을 하겠다고 나서고



시찬 가든의 매니저 랜 두안

있지만 모두 정중하게 사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결코 시찬 가든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의 따뜻한 격려와 열심히

일하는 가족 비즈니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가족들의 친절함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그는 친절한 말과 격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두안은 하버드 대학원들과 학생회로부터도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밝히고 한 사람의 행동이 하버드 전체의 명예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또한 하버드에 모든 부정적 인상이 지워진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하며 이 상황에서 선함이 싹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찬 가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작은 음식점 등 비즈니스를 격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언론에게도 시찬 가든의 고객을 존중해주며 업무시간을 존중해달라고 부탁했다. hsb@bostonkorea.com

MA 프리스쿨 연령 아동교육 연방 정부 \$15M 지원

프리 스쿨 과정 확대
470명 아동 혜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가 어린 아이들의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12개 주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 10일, 매사추세츠 주가 1,500만 달러를 연방 정부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연방 교육부는 매사추세츠 주의 주요 도시인 보스턴, 홀요크, 로렌스, 로웰, 스프링필드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패트릭 주지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프

리스쿨 개발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승인을 받을 경우 4년에 걸쳐 6천만 달러를 지원해준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매사추세츠 주는 첫 해에 해당하는 1,500만 달러를 받게 된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공립학교에서 프리스쿨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약 750명의 4살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조기 교육은 “어린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한 강력한 투자”라며 연방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jsi@bostonkorea.com



MA주는 향후 4년 간 연방 정부로부터 6천만 달러를 프리스쿨 교육 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벤 에들먼 교수 사과 성명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경영대학원 벤 에들먼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시찬가든에 취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시찬가든이 주문음식 가격을 웹사이트보다 4불 더 부과하자 격분해 법

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한 에들먼 교수에게 그동안 비난이 봇물처럼 밀려들었다. 그는 성명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랜 두안과의 이메일을 본 것으로 보인다. 랜 두안과 이메일 교환에서 말했던 것과 말하는 방법을 되새겨 보니 도가 지나쳤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상황이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과 겸손의 자세로 대하기를 위해 왔지만 분명하게 그러지 못했다. 사과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행동하겠다. 두안에게 접촉해 개인적으로도 사과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그의 행동은 대한항공의 땅콩리턴으로 불리는 조현아 부사장과 유사했지만 사과만큼은 진심을 담아 제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가격별
다양한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말 선물은 누구나 좋아하는
정관장 제품으로 하세요!

연말사은 BIG 이벤트

이벤트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50g FREE
성원에 감사하여 12월 25일까지
연장 실시합니다.



이벤트 2
홍삼추출액
10%
\$46 상당 선물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보스톤 유일의 홍삼 전문매장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전화주문 서비스



781-238-0303



로 주문후 1~2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 / \$100 이하 \$5 배송비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연방 정부 주 푸드스탬프 법 시행 개선 명령

사진 부착 푸드스탬프 카드
혼선으로 일부 슈퍼마켓
카드 사용거부 사례 발생



메인주에서도 포토 푸드스탬프를 시범실시했으나 전반적인 시행은 미루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푸드 스탬프 사진부착을 의무화하면서 일부 저소득층이 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드러나자 연방 정부가 빠른 제도개선을 명령하고 나섰다.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카드로 알려진 이 푸드스탬프 카드는 일반 데빗카드와 유사하며 저소득층 가장에게만 발급된다. 일부 슈퍼마켓의 계산원들을 카드 소유자 배우자나 여타 가족들이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연방정부의 푸드 스탬프 이용자들을 일반고객들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현재 매사추세츠에서 이같은 문제가 얼마나 빈번한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미 농무부가 주정부의 포토카드의 이행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할 정도라면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글로브는 보도했다.

미 농무부는 지난 8월 감시단을 매사추세츠에 파견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 정부 공무원들은 포토카드의

법규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을 받지 못해 잘 모르며, 이에 따라 각 슈퍼의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법규내용이 전달,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경우 포토 카드 면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에서는 이들의 EBT카드 사용을 거부했었다.

농무부는 많은 가정들의 구 EBT 카드가 신규 카드가 도착하기도 전에 정지돼 한동안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 농무부는 지난 2일 편지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 복지부(DTA)는 사진 카드를 만들기 위해 1백50만불을 들였으며 1년 전부터 22만 5천명의 수혜자들에게 카드를 발송해왔다. 주정부 관계자는 아주 성공적으로 카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6세로 두아이의 엄마인 비키 감씨는 2010 남편이 IT직장을 잃은 후부터 푸드 스탬프 혜택에 의존

해 왔다. 감씨가 지난 10월 보스톤 인근 코스코에서 EBT카드를 제시하고 정확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도 계산원이 남편의 사진과 다르다며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또한 매니저마저 이를 거부했다. 감씨는 “사람들이 모두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너무도 창피했다”고 아픈 경험을 이야기했다.

주 의회는 2013년 미국내 최초로 푸드 스탬프 카드 사진부착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중이다. 일부는 이카드를 사고팔기도 하는 문제점과 이 푸드스탬프는 식품 외에 다른 것을 구입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미 농무부는 이것이 효과적인 사기 방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드별 패트릭도 비록 법안에 서명은 했지만 우려를 전했었다.

새로운 카드 시행 이후 많은 저소득 옹호단체들이 신규 카드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주 복지부(DTA) 관료들은 문제없다며 이같은 제안을 무시해 왔다.

hsb@bostonkorea.com



새해부터는 주유기를 잡고 있지 않아도 주유할 수 있는 클립을 사용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핸즈프리 주유 가능

매사추세츠 클립사용
금지법 폐지,
이제 주유 끝까지
잡고 있는 불편 덜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유난히 겨울이 춥고 긴 보스톤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일은 상당히 귀찮고 성가시게 느껴질 수 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기름이 잘 때까지 주유기구의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새해부터는 주유 기구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 주유를 할 수 있게 된다. WGBH에 따르면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손가락을 넣지 않고도 주유를 할 수 있도록 주유기구의 손잡이를 지탱해주는 클립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매사추세츠 주는 주유 기구에

클립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유일한 주다. 미국 내 다른 주에서는 주유를 할 때 다른 일을 하거나 주유 기구에 손을 대지 않도록 도와주는 클립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클립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주유 기구의 안전성이 높아졌고, 매사추세츠 소방부에서 다른 49개 주의 화재 기록을 조사한 결과 클립을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년부터는 매사추세츠 주의 운전자들도 주유를 하면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가게에서 음료를 사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동차에 기름이 차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jsi@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 탐 수 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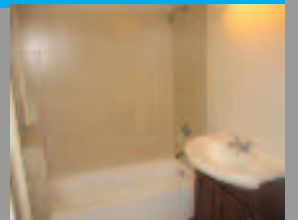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나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과 대학원(MBA)을 마치고 10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에서의 환경,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업중이며 물경매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9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LEXINGTON



단독주택

For sale: \$ 799,000

2 BEDS, 2.5 BATHS, 1,811 SQ FT

ACTON



CONDO(2014년 새집)

For sale: \$ 699,900

4 BEDS, 3 BATHS, 3,200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

NATICK



CONDO

For sale: \$ 489,900

2 BEDS, 2 BATHS, 1,303 SQ FT
NATICK MALL 과 PRIVATE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

유가 '심리적 저항선' 60달러 붕괴 목전

미국 원유재고도 증가
사우디 감산 의사 없어
5년 5개월만에 최저



국제유가가 당분간은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뉴욕주 검제유가가 10일5년여래 최저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60달러가 위협받고 있다. 전세계 공급과잉이 또 다시 나타난 것이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감산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어 하락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1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88달러(4.5%) 하락한 배럴당 60.94달러에 체결됐다. 이는 2009년 7월 이후 5년5개월만에 최저다.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2.60달러(3.9%) 내린 배럴당 64.24달러에 거래됐다. 이 역시 2009년 7월 이후 최저다. 중동산 두바이유 2월 인도분 선물값은 1.8달러(2.8%) 하락한 62.91달러를 기록했다.

유가는 11일 아시아 시장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미미하다. WTI는 58센트 오른 61.52달러를, 브렌트유는 65센트 상승한 64.89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두바이유는 1.8달러 하락한 61.3달러로 5년5개월래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내년 원유 수요 전망 하향조정과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소식이 가격 하락세를 이끌었다.

오펙은 월간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2890만 배럴로, 올해의 하루 2940만 배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성장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는 게 OPEC의 판단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가 150만 배럴 증가한 3억808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270만 배럴 감소를 예상한 시장 전망치와 상반되는 것이다.

밤사이 국제유가 급락세는 증시에도 악재가 됐다.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1.51%, S&P는 1.64%, 나스닥지수는 1.73% 하락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이날 24.5% 급등한 18.53을 기록했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지수는 0.34% 빠졌다.

크레디트스위스의 글로벌 에너지 담당 이노코미스트 잔 스튜어트는 "오펙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방치하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아직 반등세를 이끌 만한 이렇다할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실제로, 이날 오펙의 만형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 알 나يمي 석유장

관은 급락하는 국제유가에도 감산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참석을 위해 페루 수도 리마를 방문중인 알 나يمي 석유장관은 이날 "내년 6월의 오펙 정례 회동에서 감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상품시장은 알아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면서 "이것은 시장이며 우리는 시장에 원유를 팔고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감산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시장에서 유가상승이 나타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장이 할 일"이라고 대답했고, 국제 석유시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가"라고 대답했다.

모간스탠리는 앞서 지난 7일 보고서에서 "오펙의 개입이 없다면 과잉공급은 내년 2분기에 정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내년도 전망치는 종전 98달러에서 70달러로 낮춰 잡았다. 2016년의 경우, 102달러에서 88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모간스탠리는 내년 2분기에는 유가가 43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cji@news1.kr



고문의 효과에 대해 의회와 CIA의 의견이 갈리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은 더이상 정의의 국가란 표현을 사용하기에 낯간지러워 됐다

미 고문 보고서에 국제사회 규탄 높아

유럽 동맹국은 물론 아랍 국가들의 반발도 거세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알 카에다 포로들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실태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유럽 동맹국 등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10일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역겨운 침해 행위가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캐서린 레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보고서가 "미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국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미국의 비판을 받아온 중국과 이란도 목소리를 보탰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고문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미국도 스스로 반성하고 방법을 바로잡고 국제 조약을 존중,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오랜 숙적인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역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인권에 대한 폭정을 상징한다"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보

탰다. CIA가 비밀 감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곳 가운데 하나인 폴란드의 알렉산드르 크바스니에프스키 전 대통령은 현지 언론에 "미국이 너무 비밀리에 시설을 운영해서 우려가 높아졌다"며 "(고문 행위를) 저지하려던 우리 측 노력에 폴란드에서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크바스니에프스키 전 대통령과 영국 인권단체 CAGE 등은 고문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한 이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CIA의 고문실태를 기록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9.11테러 이후 CIA가 아시아, 유럽 등지의 기밀 시설에서 알카에다 포로들을 대상으로 2001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자행한 고문 실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CIA가 사용한 수사 기술은 알려진 것보다 잔혹하고 훨씬 심각해 해외에 있는 미국 공관이나 기지 등을 겨냥한 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lchung@news1.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AX: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inis.com/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웨이블



전화 예약 : Office.617.795.0095, Cell.617.970.6038
시간 : 월요일 ~토요일 (10am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법과 질서 이름아래 흑백차별장치 곳곳에

백인들 기득권 유지 총력
점차 빈부격차 심해져
흑인은 기질 탓 백인은
환경 탓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사 = 아프리카 노예에서 출발한 흑인 사회가 버락 오바마를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배출하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피부색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양분화 현상은 여전히 해소될 기미가 없다. 미국사회의 뿌리깊은 시스템적인 차별 장치들 때문이다.

대배심 제도

미국사회의 차별 장치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배심제도이다. 배심원들을 선별해 기소권을 갖게 하는 대배심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고 배심원 구성에 늘 백인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흑백 인종과 관련된 대배심에서는 예외없이 불공평한 판정을 내리게 된다.

2012년 2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히스패닉계 백인 자경단원 조지 지머먼(29)은 비무장한 흑인 소년 트레이빈 마틴(17)을 총격에 무참히 살해했다. 편의점에 들렀다가 귀갓길에 변을 당한 마틴은 후드 차림이었고, 소지품은 '스키틀스'(캔디류)와 '애리조나 아이스티'(홍차 음료)가 전부였다. 당시 배심원단은 백인이 5명, 히스패닉이 1명이었으며 흑인은 한명도 없었다.

오히려 미주리 주 퍼거슨에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18)을 사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28)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서도 대배심의 백인이 9명 흑인은 3명 뿐이었다.

흑인들의 참정권 제한

로스앤젤레스(LA)에서 흑인폭동 사태가 발생한 지 22년이 지났음에도 이처럼 미국이 인종차별이라는 고질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흑백 간의 불신이 뿌리깊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연방 흑인의원 모임에서 퍼거슨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과 흑인집단 간에 '불신의 심연'(gulf of mistrust)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언급했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 이어 흑인을 체포하다 목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항의 시위 모습

다.

흑백 간의 불신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전쟁을 거치며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이를 계기로 지독한 상실감에 빠진 백인사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은밀한 노력에 빠져들었다.

흑인의 참정권을 허용하면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제한하려 선거구를 마음대로 조정했고, 흑인의 주요 소득원인 정부 부문 일자리는 계속 줄여나갔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없이는 투표를 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것도 흑인사회를 견제하려는 백인사회의 '꼼수'로 지목된다.

전 미 유 색 인 지 위 향 상 협 회(NAACP)에 따르면 흑인의 25%는 정부가 발급한 포토 ID가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법률 개정안으로 총 600만명의 흑인이 헌법이 보장한 투표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불만이 있을 때 거리로 나서는 흑인 사회와 달리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기관을 두루 장악한 백인사회는 아주 은밀하게 자신들의 이권을 강화했고 따라서 특별한 주목을 받지도 않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흑백 간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브랜다이스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대공황 이전에 흑인에 비해 평균 4배가 많았던 백인의 재산이 2010년에는 6배로 격차가 벌어졌다.

경찰에 백인 압도적, 총기 사용권한도 인정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들을 사실상 '위험인물'로 규정하고 백인 위주로 구성된 경찰에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들이 양산됐다.

총기 사용에 관한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플로리다 주의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정당방위를 넘어서 과잉방위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경찰은 지머먼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44일간 체포조차 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백인사회는 늘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장기간에 걸쳐 흑인의 주류사회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교묘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퍼거슨과 여기에서 누적된 모순이 다시 한번 표출된 결과다.

언론의 흑인에 대한 인식 편향

백인들은 대부분 흑인들이 잘못하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기질 탓으로 돌리고 백인들이 잘못하는 경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 탓으로 돌리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언론도 이같은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늘 흑인이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면 흑인이 마리아나를 했다는 등 과거 범죄 경력이 있다는 등의 기사를 내보낸다. 이번 퍼거슨 사태에서도 마이클 브라운이 대마초를 피웠다, 강도 행위를 했다는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뉴욕타임즈도 이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경찰관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은 없다. hsb@bostonkorea.com

뉴욕 검찰"경찰 과잉단속 조사권 달라"

윌리엄 영국왕세손부부 참관 바클레이스 센터서도 시위 지속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뉴욕주 검찰총장은 8일(현지시간) 비무장 민간인들이 경찰의 과잉진압 도중 숨지는 사건들에 대한 조사·기소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해달라고 주정부에 요청했다. 경찰의 과잉 공권력 사용과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에릭 슈나이더먼 뉴욕주 검찰총장은 "(스태튼 아일랜드서 초크사한)에릭 가너의 죽음을 둘러싼 끔찍한 일들은 우리 사법체계의 근본 요소에 깊은 '신뢰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경찰들과 대중을 위해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슈나이더먼 총장은 그러면서 의회가 비무장 시민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의 해법을 찾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경찰에 의한 비무장 시민의 사망 사건을 주검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임시 행정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슈나이더먼 총장이 작성해 쿠오모 주지사에게 보낸 이 서한에 대해 뉴욕주 20여개 시 당국이 지지 의사

를 밝혔다.

소요사태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는 오후 5시부터 가너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가두행진을 벌였다.

시위대의 행진으로 인해 다운타운 버클리 바트(전철)역이 폐쇄됐고 인근의 상점들은 이날 하루 영업을 중단했다.

이들이 80번 고속도로와 앰트랙 열차를 막아서면서 일대 교통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프로농구(NBA) 경기가 열리던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는 약 300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가너의 생전 마지막 말인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는 구호를 외쳤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으로 들어가려던 관람객들 사이로 진입을 시도했다. 일부는 인근에 위치한 대형 잡화점 '타겟'을 급습했지만 곧 진입한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경기를 직접 뒀 르브론 제임스 등 스타 선수들도 '숨을 쉴 수 없다'는 문구를 적어넣은 티셔츠를 입는 것으로 동참했다.

이날 경기에는 미국을 방문 중인 영국의 윌리엄, 케이트 왕세손 부부도 참석했다.

lchung@news1.kr

주요 마켓 바비인형 흑백 가격 달라 비난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잇따른 미국 백인 경관의 비무장 흑인 살상로 인해 불거진 인종차별 논란이 바비인형에 까지 번졌다.

10일 미국 CNBC에 따르면 미국의 최대 유통체인인 월마트는 같은 모양을 가진 백인과 흑인 바비인형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했다.

월마트 홈페이지에 기재된 흑인 아이스케이터 바비인형의 가격은 11.87달러인 반면 같은 의상을 입은 백인 바비인형의 가격은 9.88달러에 불과하다.

월마트 측은 이 같은 가격차가 의도치 않은 실수라고 설명했다.

월마트 대변인은 이날 "인종과 관계없이 같은 가격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한 실수로 즉시 가격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할로윈을 앞두고 과체중 여성을 위한 '뚱뚱한 여성 전용 코스튬'을 판매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던 월마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 한 차례 비난을 사고 있다.

또 다른 대형 유통체인인 토이저러스도 같은 인형에 비슷한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토이저러스 홈페이지에는 월마트와 반대로 백인 바비인형의 가격이 14.99달러로 흑인 바비인형 10.99달러보다 높게 기록돼 있다.

캐슬린 위 토이저러스 홍보담당 부회장은 "토이저러스는 모든 인종의 인형에 대해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곧 가격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미 오하이오 지역방송인 WCPO에 따르면 할인 유통체인 타깃도 앞서 백인과 흑인 바비인형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수정했다.

타깃은 같은 의상을 입은 흑인 바비인형의 가격을 백인 바비인형 가격 23.49달러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49.99달러에 판매했었다. 이후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두 인형 모두를 20.99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findlove@news1.kr

타임, 올해의 인물에 〈에볼라 전사들〉…2위는 퍼거슨 시위자들

(서울 = 뉴시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2014 '올해의 인물'로 '에볼라 전사들'(the Ebola fighters)을 선정했다.

타임은 10일 자사 웹사이트에 통해 에볼라 치료·예방 의료진에 '에볼라 전사들'이라는 명칭을 붙여 주며 그들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낸시 깁스 타임 편집장은 "전 세계

에볼라 전사들은 현지 의사, 간호사, 구급차 운전자, 장례 팀들과 함께 일했다"고 소개했다. 깁스 편집장은 "이들은 지지치 않는 용기와 자비의 행동을 보여줬다"며 "세계는 일어서 맞서 싸울 용의가 있는 남녀그룹 때문에 밤에 잠 잘 수 있다"고 말했다. 깁스 편집장은 또 에볼라로 인해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희생됐다고 말하며, '에볼라 전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자고

했다.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은 1년 동안 선악 구별 없이 세계의 뉴스와 문화를 지배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에게 돌아간다. 지난해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정됐다.

한편 타임지가 선정한 2014 올해의 인물 2위에는 퍼거슨 시위자들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올랐다. khe45678@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올가닉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악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여야 '빅딜'...여 '공무원연금', 야 '자원외교 국조' 주고 받기

4대강 국정조사,
'정윤희 게이트'
합의문에서 제외

(서울=뉴스1) 여태경, 김영신, 유기림, 서미선 기자 = 여야는 10일 연내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파헤치는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기로 하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자원외교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나눠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이른바 '2+2'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 연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 대타협 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국조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부동산 3법과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법을 포함한 민생경제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결국 새누리당이 강력히 요구한 공무원연금개혁과 새정치연합이 원했던 자원외교 국조를 하나씩 주고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해온 4대강 사업 국정조사와 '정윤희 문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 합의문에서 빠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4대강 국조를) 주장했지만 그 문제는 아직 공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제 판단"이라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희 문건'에 대해서는 "한창 수사 중이기 때문에 문서유출 사건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2 회동이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합의됐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맞게끔 논의됐다"고 합의문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고 단순한 문서유출 사건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인사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다

하지 않다"며 "우리는 산적한 문제가 있어서 야당이 주장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유기흥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대해 야당은 15·16일 긴급 현안 질의가 있을 거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오늘 합의하지 못한 문제에 대

해서는 추후에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2+2 회동을 다시 갖고 이날 논의하지 못한 개헌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자원외교 국조를 받아들이며 당내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친이계 중진 의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딜을 하는 그런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위만 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통과가 전제된 것도 아닌데 그건 잘못된 딜인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haru@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DEC. 12, 2014 - DEC. 18,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Merry Christmas

COUNTDOWN TO

Silent Night

CHRISTMAS

HAPPY Holiday SEASON 2014

크리스마스 선물은 **H마트에서**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THE BEST GIFTS ARE ON SALE EARLY
 PLAN AHEAD & GET YOUR GIFTING GOING

KYONG GI RICE
40 lbs. 경기미
\$29.99

TONGTONGBAY DASHI ANCHOVY
통통배 다시 멸치
\$19.99
2 lbs./pkg.

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6.99
lb. 양념 소불고기

DONGWON CANNED LIGHT STANDARD TUNA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6.99
5.29oz. x 4cans/pkg.

EMBO MICROFIBER PAD & COMFORTER
극세사 엠보 패드겸이불
\$14.99
All Colors/ea.

SINGO PEAR
신고배 박스
\$26.99
box

BOUNTY PAPER TOWEL
바운티 페이퍼 타월
\$14.99
12rolls/pkg.

HMART GIFT CERTIFICATES
 Always used. Always appreciated.
 연말연시,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GET SMART AND SAVE BIG
 오늘부터 H마트 스마트 카드로 똑! 소리나게 장보세요
 Smart Card shoppers know how to get extra discounts. It's the smarter way to shop.

NEW Haru Haru Rice RICE RICE BABY!
 하루하루 마이쌀 신제품 출시!
 Try all our new varieties, all with the taste and quality you'll love.

Also try our new small size HARU HARU Milled Rice (4.4 lbs.)

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	Kabocha 단호박 lb. \$0.9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	Scallion 파 bun./for 2\$1	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고기 lb. \$4.99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돼지 목살 lb. \$5.99
Beef Patella Bone 도가니 lb. \$1.49	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7oz./pkg. \$5.99	Headless Black Tiger Shrimp 머리없는 블랙 타이거 새우 lb. \$16.99	Illex Squid 냉동 오징어 lb. \$1.99	Uni 성게알 2.11oz./pkg. \$6.99	HAIOREUM Cooked White Rice 해오름 순밥 7.4oz. x 6ea./pkg. \$6.99
HAIOREUM Roasted Seaweed 해오름 도시락 맛/파래 김 0.15oz. x 8ea./pkg. \$2.99	HAIOREUM Frying/Pancake Mix 해오름 튀김/부침가루 2 lbs. \$1.99	ALCHAN SOONDAE Fully Cooked Korean Brand Link 알찬 순대 1.5 lbs. \$9.99	SAMYANG Kalguksu 삼양 순칼국수 3.5oz. x 5ea./pkg. \$3.99	SAJO Lohi Canned Tuna 사조 로하이 고추참치 5.29oz. x 3cans/pkg. \$5.99	CROWN Lollypop/Corn Chips 크라운 조리칩/콘칩 5.85 - 6.5oz. 2\$4 ea./for
HORMEL FOODS Spam 스팸 Classic/Lite/25% Less Sodium - 12oz. 2\$6 ea./for	ITO EN Tea Drink 이토엔 티드링크 All Flavors/67.6fl.oz. \$3.99	CHAOKOH Canned Coconut Milk 차코 코코넛 우유 13.5fl.oz. 2\$3 ea./for	Microfiber Slipper 극세사 코듀레이 슬리퍼 All Colors/Pair \$3.99	Wood Patterned Indoor Mat 나무무늬 거실용 매트 150cm x 200cm/ea. \$16.99	ZOJIRUSHI Stainless Steel Lunch Jar 조지루시 보온 도시락통 SL-NCE09/ea. \$32.99

정윤희 16시간 조사 끝 귀가..."검찰 수사 지켜봐 달라"

고소인 자격으로 출두
여전히 당당한 자신감
빠른 걸음 차에 타며
"검찰수사 지켜보세요"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중심 인물인 정윤희(59)씨가 16시간 남짓의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씨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10일 오전 9시47분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한 조씨는 익일 오전 1시43분쯤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 16시간만이었다.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선 정씨는 출석할 때와 달리 '포토라인'에 멈춰서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로 걸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차를 향해 걸던 그는 '배후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불을 지른 사람

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앞서 정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이런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불장난에 참춘 사람이 누군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박관천(48) 경정과 대질조사 과정에서 박 경정이 여전히 타이핑만 했느냐고 주장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라구요"라고 답했다.

차를 향하던 정씨의 걸음은 전날 아침 검찰청사로 들어설 때보다 빨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목소리도 전날보다 작았다.

전날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도 신변 보호 요청을 했던 정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신변보호 요청을 통해 중앙지검 직원 2명의 경호를 받아 전날 타고왔던 검은색 구형 에쿠스를 올라 탄 뒤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정씨에게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2차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문건 속 당사자이자 '국정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정윤희 씨가 11일 밤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씩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실제 3인방'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와 만나 '국정·인사개입'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 받는 회합을 가졌는지 등

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개입 의혹'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과 정씨를 한 자리에 불러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서로의 주장 중 다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등 대질조사도 병행했다.

hwp@news1.kr

검, 정윤희 16시간 조사 "박관천과 대질"

정씨 사건 기획 배후로
조응천 지목
체포된 최모, 한모 경위와도 대질

(서울=뉴스1) 전성무, 박현우 기자 =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 문건' 진위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소환된 '비선실세' 정윤희(59)씨를 상대로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불장난에 참춘 사람과 배후는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말한 뒤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상대로 문건에 나온 것처럼 지난 10월부터 매월 2차례 씩 정기적으로 서울 강남 J중식당에서 '실세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안팎인사 10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했다. 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캐물었지만 정씨는 기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청와대 내·외부에서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이번 문건 유출 사건을 기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사건을 기획한 배후로 "문건의 신빙성은 6할 이상"이라고 밝힌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조 전비서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 경정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날 문건 유출 경위 보강조사를 위해 전날에 이어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소환돼 조사받던 박 경정을 형

사1부로 보내 정씨와 대질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던 정씨는 "어떤 근거로 또 누구의 지시로 그런 허위 문건을 작성했느냐"는 취지로 박 경정에게 따져물었고, 이에 박 경정은 수긍할만한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 대질조사가 끝난 뒤 검찰은 오후 11시쯤 다시 특수1부에서 앞서 체포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와의 대질조사를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대질조사에서 두 사람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경정이 유출한 청와대 문건 다수를 무단 복사해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유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최 경위와 한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경위 등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10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서울청 정보1분실장 자리에 가져다 놓은 개인 짐을 뜯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복사한 뒤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사와 대기업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10일 오전에는 박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근무하는 세무법인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씨가 "증권자 정보지도 보고 여러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를 박 경정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박씨가 전해 들었다는 정보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lennon@news1.kr

검, 정윤희-이재만 '4월 통화' 확인 "수시 통신 확인 시 소환"

정·이 사이 통화횟수,
차명폰 사용 여부,
'십상시' 등과의 통신 여부 등은
"수사중이라 확인 못해줘"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검찰이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윤희(59)씨를 10일 불러 조사한 가운데 다각적인 통신내역 분석도 시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통신내역 분석을 통해 정씨가 이른바 청와대내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십상시'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면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본인 등에 의해 인정된 부분 이외에도 추가적인 통신내역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주목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4월 정씨와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쪽에서 이미 통화사실을 인정했고, 통신내역 분석을 통해서도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씨와 이 비서관의 통화가 단 한 차례 뿐이었는지 아니면 그 경우 외에도 수시로 이루어졌는지, 정씨가 이 비서관과 연락을 취한 전화가 차명폰은 아니었는지, 정씨가 이 비서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 다른 3인방을 포함 '십상시'와 연락을 주고 받은 정

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앞서 정씨와 이 비서관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다는 입장을 취해오다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폭로로 지난 4월 정씨와 이 비서관이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이후 양측은 마지못해 통화 사실을 시인했었다.

그러나 정씨가 이 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 등 10명과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2차례씩 만나 국정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국정개입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와대 내부 문건의 진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검찰은 해당 통화내역과 이 '회합'의 단서는 별개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청와대 문건 작성시기가 1월인데 두 사람은 '박지만 미행설' 등 언론보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4월에 통화한 것으로 안다"며 "정씨와 이 비서관의 통화내역이 회합의 단서가 되려면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회합 장소 근처 기지국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통신내역과 압수품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검찰은 정씨와 이 비서관을 포함한 '십상시'가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통신내역 분석 등을 통해 드러나면 이들이 실제로 회합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wp@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현직 서울대 교수 '또' 성추행..."터질 일이 터졌다"

"외부에서 먼저 논란된 것은 충격...학교 내에서는 비밀비재한 일"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현직 교수가 학생들에 대한 상습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한 차례 몸살을 앓았던 서울대에서 또 다른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대 측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A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달 말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돼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교수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회식을 하던 중 여학생 B씨에게 수차례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같은 이유로 현재 학내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학생들에 대한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서울대 수리과학부 K모(54) 교수가 검찰에 구속되는 서울대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K 교수의 경우 검찰의 수사와 학내 인권센터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달 26일 학교에 돌연 사표를 제출했고 서울대 본부가 다음 날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서울대 본부 측은 지난 1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K 교수가 낸 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학내 인권센터의 진상조사 역시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 잇따른 교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서울대 재학생들은 "충격적인 일"이라면서도 "터질 일이 터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 이공계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여성 대학원생은 "학내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검찰, 경찰로 잇따라 넘어가면서 외부에서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면서도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원생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과에서도 어느 교수님이 여학생을 부를 땐 꼭 문을 닫아둔다더라, 어느 교수님은 술자리에서 여학생이 주는 술이 아니면 받지 않는다더라, 하는 얘기가 돈다"며 "다른 학과에서도 이런 문제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교수님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학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인권센터를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얘기한 학생들이 대단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대 학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K 교수 사건이 불거질 당시부터 또 다른 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 교수는 현재 게시판에서 직접 실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이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의 증언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해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선을 긋는 시각도 있다.

연세대 인문계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여성 대학원생은 "학교별로, 학과마다 소문이 도는 교수님들이 있다"며 "우리 학교에도 있지만 다들 얘기



를 꺼내기 어려워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교수님들은 교수님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울대 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이런 사건은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하경주 활동가는 K 교수 문제가 불거질 당시 "상당 사례를 보면 학점을 받거나 공부를 계속하거나 취업을 하려면 교수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관계

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며 "교수들도 역시 권력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성희롱, 원치 않는 행동의 강요 등을 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가해 교수들의 행동은 대부분 사건에서 비슷하다. 술자리에 불러낸 다든가 이런 식의 일이 반복되면서 수위도 높아지고 한 학생이 아닌 다수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제제가 없다 보니 가해 교수들로서도 본인의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에게 친밀한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abilityk1@news1.kr

내년 한국의 모든 음식점 금연

보건복지부, 전국 60만개 업소에 적용...흡연자 과태료 10만원
커피숍 내 흡연석 두면 170만원 부과...3차 위반하면 500만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60만개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일 반적인 껌련뿐 아니라 전자담배, 물담배 등 모든 형태의 담배가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는 흡연자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 내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해왔다. 2012년 12월 150㎡이상 7만개, 올해 1월 100㎡이상 8만개, 2015년 1월부터는 60만개 모든 음식점에 적용된다.

커피전문점에서 유리 벽 등을 설치해 금연석과 분리하고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흡연석도 사라진다. 흡연석 특례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음식점 내 금연 표시도 함께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은 330만원, 3차 이후에는 5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건물 내 흡연은 담배 연기가 실외로 배출되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물품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같은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설비는 설치하면 안 된다.

복지부는 전국 음식점 내 전면 금연을 홍보하기 위해 12월 한 달 간 집중계도와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PC방과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이미 흡연이 금지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행위 일제 단속도 벌인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음식점 주인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음식점들이 건물 외부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뤄지는 흡연 행위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불법적인 영업 행위이므로 다른 형태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음식점 내 흡연 단속 등을 전담하는 금연지도원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 보건소당 3명씩 총 430여명의 금연지도원이 배치될 예정이며 이들의 급여는 지자체와 정부가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

이경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을 시행한다"며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들 준수 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가 금지된다"며 "계도기간이라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news1.kr



이정현, "근본없는 놈? 기분 거시기"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가 자신에 대해 "근본없는 놈"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기분이 영 거시기하다"며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1과 한 전화통화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에 정씨가 자신을 평가절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최고위원은 "빈총도 안 맞은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짜라시에 '이정현은 근본없는 놈'이란 말이 있었다고 한다"며 "어떤 자리에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분은 영 거시기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돌이켜보면 당혹스러운 진실이긴 하지만 이정현은 근본없는 놈이 맞는 말일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 놈이 호남에서 19년 동안 네번씩이나 출마를 하고 호남 놈이 새누리당에서 30여년을 활동하고 있으니 어느 쪽에서도 나는 늘 근본없는 놈 취급받았다"고 술회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나는 늘 혼자였다. 긴 세월동안 나는 참으로 외로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시 생각해봐도 근본없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놈에게 기회를 주고 손을 잡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순천·곡성 분들의 따뜻한 격려가 너무나 무고맙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없는 놈에게 대통령 수석(정무·홍보) 두 번, 집권당 최고위원 두 번, 국회의원 두 번의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과 새누리당 분들이 한없이 고맙다"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근본없는 놈이라는 눈총이 나를 더 단련시켰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 진실을 알면 그분 기분도 나처럼 영 거시기할까"라고 반문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정현은 이정현다울 때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정현 촌놈이고 그것이 이정현다움이다. 어쩔건데"라고 글을 맺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메모지에 자필로 적어 고민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었다.

eriwhat@news1.kr

저희들은 가입에서 건강검진 및 그 기간 중의 모든 단계에서 항상 함께 합니다.

Tufts Health Plan - Network Health 는 모든 단계에서 고객과 함께 합니다. 저희들은 고객에게 최고품질의 적절한 건강진료 서비스를 받도록 쉬지 않습니다.

오늘 가입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GetNetworkHealth.com 에서 확인하세요.

TUFTS Health Plan
NETWORK HEALTH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강플랜의 모든 옵션에 대해서는 MAhealthconnector.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4 Tufts Health Public Plans, Inc.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하고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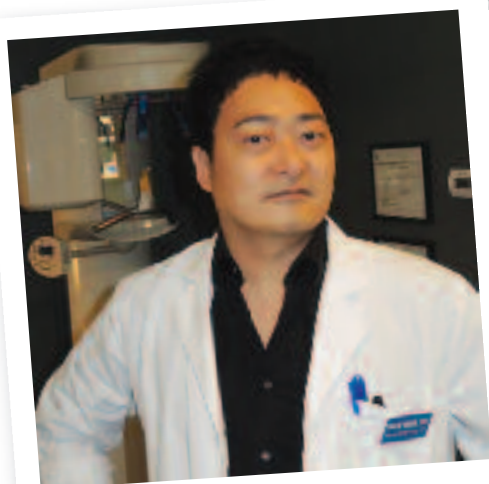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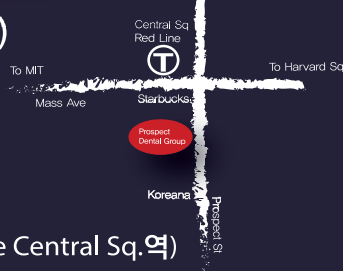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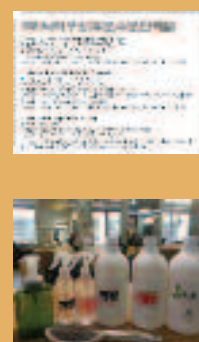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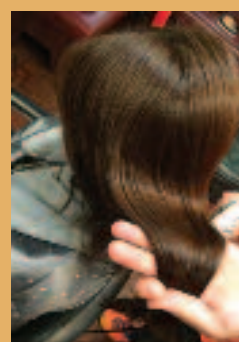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볼/여자컷 30볼/파마 70볼 부터
디지털 130볼 부터/케라틴 매직 220볼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검, '땅콩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수사...대한항공 압수수색

대한항공 인천공항
사무실, 김포본사 등
블랙박스, 운항기록 등
확보 조작여부 확인 예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1일 대한항공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1일 오후 2시쯤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인천공항 대한항공사무소 등에 검찰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사안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속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땅콩리턴'과 관련된 여객기의 블랙박스, 운항기록 등을 확보해 운항기록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의 경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만큼 교신내용을 확보해 정확한 과정을 파악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안전운항과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경우 교신내용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교신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블랙박스에 저장되는 내용은 2시간 30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정상비행 중 일어난 램프리턴 상황은 저장돼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항공기(KE086)는 해당 블랙박스를 탑재한 채 운항일정에 따라 미국 뉴욕 존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 서울 인천공항으로 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자료를 분석한 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땅콩리턴' 논란과 관련해 항공보안과와 운항안전과를 투입해 기장과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 전부사장은 12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10일 조 전부사장에 대해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내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등 혐의로 조 부사장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접수한 결과 조 부사장은 흥분상태에서 여성 승무원에게 이X, 저X 등의 욕을 했다"며 "선배 격인 사무장 승무원이 사과하러 갔으나 '너는 뭐야 이XX야'라며 욕설

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태블릿PC 암호를 몰라 내리라고 했다는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다같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암호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도 기장과 협의한 게 아니라 '기장한테 연락해서 비행기 (뒤로) 빼고 내려'라고 했

다"며 "직원과 승객 등 아무도 반항할 수 없어 내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측이 지난 6일 저녁쯤 한국에 도착한 해당 사무장을 회사로 데리고 가 밤 늦게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경위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제보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공사중 개장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서 누수현상

3일 발견 후 4일 보강공사
롯데 "지금 새는 거 아니다"
시민들 불안한 눈초리
"아이와 약속해 어쩔 수 없이 왔다"

(서울=뉴스1) 오경목, 신웅수, 양새롬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롯데그룹과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됐다.

롯데 측은 4일 보수업체를 불러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누수현상은 메인수조의 수중터널 구간에서 발견됐다. 콘크리트 벽체와 수조 사이 안쪽 실리콘에 1~2mm 비로 7~8cm 가량이 찢어져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수 리터의 물이 새다.

롯데 측은 나무로 된 가림막을 설치해 관람객들이 지나갈 수 없도록 조치해 둔 상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유리에 균열이 간 것은 아니고 콘크리트 벽체와 수조 사이 안쪽 실리콘에 틈이 생긴 것"이라며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실리콘을 제대로 붙이면 기존에 떨어진 것을 아예 떼어내야 한다"며 "(기존 실리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물이

왈칵 쏟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일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한 뒤 12일날 다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강공사 업체 관계자는 "자주 일어나는 일로 특별히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족관마다 다르지만 큰 수족관일수록 누수 현상이 많다"고 설명했다.

9일 오전 현재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매표소 직원은 "따로 지시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출입을 통제하는 직원 역시 "고객이 다치지 않게 안내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시민들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쿠아리움 안으로 향했다.

경기 양평에서 왔다는 윤정남(44)씨는 "정말 물이 샀느냐"고 물은 뒤 "위험하면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윤씨는 "친구들 7명과 함께 날을 잡고 시간을 내서 온거라 그래도 들어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실(37)씨는 "조카들하고 구경왔다"며 "오는 길에 소식을 들었지만 (조카들과)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빨리 보고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지난 10월 16일 영업을 시작했다.

notepad@news1.kr

'신해철 장협착 수술' 병원, 법원에 회생신청

강세훈 원장
"고인 사망 뒤 병원 경영 어려워져"
'민사 소송' 신해철 유족 승소해도
배상액 일부 못 받을 듯

(서울=뉴스1) 박현우, 권혜정 기자 = 고(故) 신해철씨의 사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병원 강세훈 원장은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을 했다.

법정관리 제도는 법원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따져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를 일부 감면해 주는 대신 제3자를 지정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강 원장은 지난 4일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는 같은 날 언론을 통해 "고인 사망 이후 병원 환자가 끊기면서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병원 전체 부채가 90억 원에 달하고, 25명이던 의사도 7명만 남았다. 지난 5월 500억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말도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는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S병원 강세훈 원장

한다. 신청일인 8일부터 한 달 정도 걸리는 개시 결정 전까지 S병원 측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면할 수 있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적용받는다.

이후 S병원은 채무를 일부 감면 받을 순 있지만 추후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일정 비율씩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

현재 신씨 유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건은 진행 중에 있지만 원인이 되는 행위가 법정관리 신청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신씨 가족도 '미확정 채권자'에 포함된다.

신씨 측이 승소하게 되면 신씨 유족은 채권자에 포함되게 돼 S병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배상액 전부를 받을 순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hwp@news1.kr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샐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SEOUL SOULONGTANG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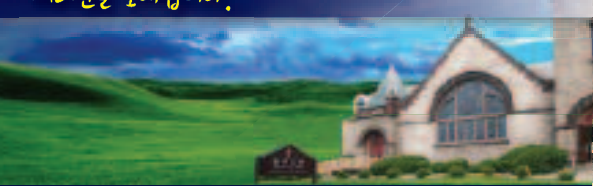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주일예배: 주일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찬양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1:3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30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새빛교회
NewLightKC.org
담임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20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Catholic Parish of Greater Boston

<판공성사>
12/5, (금), 6(토) 대림피정 중
12/14(주일) 교중미사 / 청년미사 전, 중, 후
12/21(주일) 교중미사 / 청년미사 전, 중, 후

<성탄 전야>
12/24일(수) 8pm

<성탄절>
12/25(목) 4pm
(성탄절 행사-12:15pm)

<송년미사>
12/31(수) 9pm

<천주의 모친 성모마리아 대축일>
1/1(목) 11:30am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kccboston.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8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엔터테인먼트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VIP 할인!

11월, 12월
VIP
할인 이벤트

\$29.99
(2년 약정시)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11월~12월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중에 가입 고객은
1년간 VIP \$29.99
1년 이후 \$34.99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The Best OnDemand, **티보**

전화: 617.792.6876

보스톤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CJ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사시미:

싱싱한 광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힌류나, 레드스내퍼,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매운탕까지



사시미A18인치 투고박스: \$150

160피스+매운탕+마끼4개
T10, S20, F40, H10, W20, R40, i20



사시미C14인치 투고박스: \$80

70피스+매운탕+마끼2개
T10, S10, F10, H10, W10, R20



사시미B16인치 투고박스: \$100

110피스+매운탕+마끼3개
T10, S10, F20, H20, W10, R20, i20



사시미D12인치 투고박스: \$50

50피스+매운탕+ 마끼1개
T6, S6, F10, H6, W10, R12

T: TUNA, S: SALMON, F: FLUKE, W: WHITE TUNA, R: RED SNAPER

스시와 롤:

싱싱광어, 혼마구로 참치, 스코티시 셀몬, 하마찌,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A: 72피스, 초밥 \$98.95

B: 64피스, 스페셜롤 \$74.95

C: 64피스, 캘리포니아롤 \$34.95

D: 48피스, 캘리롤24피스, 초밥24피스 \$48.95



김밥:

A: 김밥 200피스, 유부초밥20개 \$130

B: 김밥 100피스, 유부초밥10개 \$70



사시미 폭코스

횃집스타일 코스요리를 제공하오니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 많은 애용바랍니다.
싱싱광어한사라, 아구간, 열빙어튀김, 나또무침, 한치물회, 힌류나, 생굴, 우니, 초밥,
스켈럽버터구이, 생선찜, 스페셜마끼, 얼큰매운탕, 모찌아이스크림
일인당40불이며, 단 예약을 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모임은 오빠스시와 함께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얼스톤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단기연수인 비자 (H-3)

주재원 비자 (L-1)

특기자 비자 (O-1, P-1)

취업이민 (NW, EB-1, EB-2, EB-3)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레드삭스의 에이스 존 레스터, 결국 컵스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턴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존 레스터가 결국 시카고 컵스로 이적을 결정했다. 올해 겨울 메이저리그 FA 시장에 나온 선수 중 최고의 관심을 모았던 레스터가 6년, 1억 5천 5백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컵스와 성사시켰다.

2002 드래프트로 레드삭스에 입단한 레스터는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다. 2006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레스터는 암 판정을 받았지만 암을 극복하고 2007년에 복귀했다. 레스터는 지난 시즌까지 기록 없는 경기를 펼치며 레드삭스 선발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올스타에 3회 선발되었고 2007년과 2013년에 레드삭스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할 때 함께 했기 때문에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도 2개나 있다.

레스터는 특히 큰 경기에 강한 투수로 보스턴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13년 월드시리즈 우승 당시에는 포스트시즌에서만 4승을 거두며 방어율 1.56을 기록하는 등 강력한 구위로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견인했다.

2013년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이후 2014년에 최악의 시즌을 보낸 레드삭스는 시즌 중반에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포기하고 팀 정비에 들어갔다. 레스터는 시즌 중반에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로 이적되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의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레스터가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고 보스



레드삭스가 험값에 붙잡으려 했던 존 레스터는 컵스를 선택했다

톤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 여겼다.

레스터와 레드삭스의 계약은 지난 봄부터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며 관심을 모았다. 2014년을 끝으로 레드삭스와 기존 계약이 끝날 예정이었던 레스터는 보스턴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스터는 보스턴에서 계속 뛰기 위해 연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 시즌에 레드삭스의 2루스 더스틴 페드로이아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재계약을 한 전례가 있어 레스터의

계약 연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레스터가 레드삭스로부터 제안 받은 금액은 4년, 7천만 달러라는 지극히 낮은 금액이었다. 레스터가 연봉이 줄어드는 것을 감내할 수 있다고 했지만 레드삭스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낮은 금액을 베푼 것이다.

레스터가 FA 시장에 나왔을 때 시카고 컵스 외에 적극적으로 영입 의사를 밝힌 팀이 레드삭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다. 레드삭스는 레스터에

게 6년, 1억 3천 5백만 달러를 제시했고, 자이언츠는 7년, 1억 6천 8백만 달러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레스터가 컵스와 최종 합의한 금액이 6년, 1억 5천 5백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레드삭스가 스프링 캠프에서 4년, 7천만 달러를 제시한 것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레드삭스가 시장 상황을 잘못 인식했거나, 팀 내 에이스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던 것이다.

레스터는 최종 금액에서 레드삭스보다 2천만 달러를 더 많이 제시한 컵

스를 택했지만, 단순히 돈을 더 많은 주는 팀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레드삭스가 돈만을 생각했다면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한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었을 것이다. 레스터는 메이저리그 데뷔 시절부터 함께 했던 테오 엡스타인 단장이 있는 컵스를 선택했다.

레스터는 컵스와의 계약 발표 이후 트위터를 통해 “레드삭스 팬들에게, 실망스럽다는 것을 이해한다. 보스턴은 언제나 내 가슴에서 크게 남아 있을 것이고, 모두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유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고국에서 안질환(고) 전문치료 유람에서 수술은 100% 성공 안검하수 150만원 → 120만원 안검상열 80만원 → 60만원 안검하수 20만원 → +1회 추가 새미치과	유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피크 에스테틱 특별할인 피부관리 1회 소매형 필러 1회 소매형 필러 2회 소매형 필러 3회 19만원 → 15만원 29만원 → 16만원 25만원 → 20만원 에피크 에스테틱	유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비뇨장해 + 발기장애 + 경련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는 80만원 남성비뇨기 비뇨기과 수술전문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비뇨기암 수술, 비뇨기암 수술, 비뇨기암 수술, 비뇨기암 수술 이운수 & 조성완 비뇨기과	유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윤곽, 양안 가늘고, 눈매, 입술을 살리는 안면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윤곽 700만원 → 500만원 안면윤곽 800만원 → 600만원 안면윤곽 400만원 → 300만원 안면윤곽 200만원 → 150만원 안면윤곽 200만원 → 150만원 안면윤곽 300만원 → 200만원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	--	--	--

상담 및 문의 보스턴코리아 617-583-2993

행사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2월

해외 의료 사업 팀장 김수남

미국문의: 818.331.0401 카카오톡: 010.3469.4040
이메일: huramceo@hura.co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HURAM www.huramkorea.com
휴람의 네트워크병원은 서울 강남과 양구정에 있습니다.

TALK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靈)과 6(肉)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살리는 것은(靈)이니(肉)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 요한복음 6:63”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권력 실세의 초석(礎石)을 내어놓고 ‘불장난의 주역’ 으로 2014년말을 맞는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秘線)실세의혹을 받아 온 정윤희 씨가 지난 10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정부 출범 후 정 씨가 공개석상에 얼굴을 내민 것을 처음.

“국정개입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불장난에 참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다 밝혀질 것으로 여긴다” 고 그는 자신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이날 검찰 출두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정 씨 변호인은 최근 정 씨와 청와대 일부 비서관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무고죄(誣告罪)로 고소하겠다고.

정윤희 씨는 자신도 피해자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불장난’이란 말을 했을 수도 있었지만 ‘제1야당’까지 고소하겠다는 것은 자신에게 맞선 쪽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밝히겠다는 정치적 반격의지가 강하게 서린 듯.

정윤희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첫 발을 디딘 1998년부터 박 대통령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부인은 최태민 목사의 딸. 최 목사는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과 가까웠었다.

아버지 대를 거친 인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고비마다 정치적 곤욕을 치르기도. 지금은 정윤희 씨가 관련 의혹으로 인해 온 나라가 술렁거리니...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곤경을 뼈저리게 공감했었다면 불장난 운운하기에 앞서 허리

굽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겸손히 고개를 숙였더라면...

사실은 권력 비선이란 말 자체가 민주주의로 국민의 손에 의하여 선출되는 권력 구조하에선 창피스럽다.

대통령 가까이에서 일해온 정 씨가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고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권력 책임자들의 얼굴에 ‘침 뱉는 격’의 국치(國癡)다.

하긴 북한이 핵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같은 핏줄의 동포를 굶겨 죽이는 한 배달민족의 수치는 막내릴 날 없을 듯.

집권 3년을 맞는 김정은 노동당제1비서는 2013년 12월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을 계기로 친척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 신주류 친위대로 채웠단다. 광범위한 척신(戚臣) 세력들을 끌어내고 그 빈자리를 김정은에게 절대충성을 바치는 ‘벼락출세’ 신진세력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4월 장성택 처형 이후 치른 제 13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는 대의원의 55%가 갈리는 지배층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시절 집사였던 리수용은 외무상으로 초고속 승진했었다.

김정은 발목 부상으로 40여일간 잠행한 이후 김여정을 노동당 부부장으로 최룡해를 노동당 정치국상무위원으로 승진시키는 등 백두혈통과 항일투쟁을 한 빨치산 계열을 중용하는 인적개편을 했다.

오일정(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은 노동당 군사부장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빨치산 계열의 오금철 부참장은 최근 상장(한국군의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했다.

통일부는 “장성택 숙청 이후 독세한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집권 3년간 권력장악에 성공한 김정은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김일성에 버금가는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통 빨치산계를 전면내세웠다고도 한다. 북한이 0과 6을 구별하려면 세월이 좀 더 필요할텐데...

靈영: 神也신야-신령 영 또는 령. 神: 天 | 천신 즉 ‘하나님 신’을 뜻한다. 靈자를 다시 보면 1. 雨: “水沍爲雲降爲 | : 수증위운강위신 = 비 우.” 2. 品: “官級 | 格: 관급신격 = 품수 품.” 말을 더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말씀(口)고 성령님이 전하시는 말씀(口)으로 나란히 세우고 그 아래 3. 巫: 事無形以舞降神者 사무형이무강신자” 풀면 ‘무당무’로 간략하지만 글자의 형태로 보면 工: | 匠신공: ‘하늘에서 내려온 직공장’이란 뜻.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암시” (요한복음 14:6에서 표현됨)로 巫자가 工자를 중심으로 두 인격이 좌우(左右)로 갈리는 영,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반(反) 예수님 즉 사탄(Satanic)”을 판가름하는 무(巫)자로 해석된다. 하여 靈영은 성(聖)0과 악(惡)0으로 판가름 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하여 사도 바울(Paul)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만일 의(義)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

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If righteousness could be gained through the law, Christ died for nothing - 갈라디아서 2:20,21”

“0과 6”의 선택을 성경과 예수님이 분명하고 역역히 밝히신다.

“내(사도 바울)가 이르노니 -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0(靈)이요 영원한 영생(永生)이심을 전제로 - 너희는 성(聖)0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6체(體)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So I say, live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6체의 소욕은 성0을 거스르고 성0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For the sinful nature desires what is contrary to the Spirit, and the Spirit what is contrary to the sinful nature.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so that you do not what you want - 갈라디아서 5:16,17”

이 “6을 대항한 0의 열매”는 against flesh, the fruit of the Spirit is 1. 사랑 Love 2. 희락 Joy 3. 화평 Peace 4. 오래참음 Patience 5. 자비 Kindness 6. 양선 Goodness 7. 충성 Faithfulness 8. 온유 Gentleness 9. 절제 and Self-control,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바로 이 시점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박근혜 대통령과 휘하 정치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드리는 거룩한 충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몽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Let us not become conceited provoking and envying each other.”

“보스톤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NEWSTAR BOSTON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500억원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hood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렌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최대의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경력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전국 100여개 도시에서 / 20여 개국에서 / 운영 및 관리 중입니다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Restaurant	SAT Academy	Business Consulting	Restaurant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78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Dry Cleaner	Full Plant Cleaner	Restaurant	Deli
 \$180,000 Salem, MA Downtown Salem area Well established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Deli	Grocery	Jewelry Business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론트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Full Plant Cleaner	Convenience Store	병원 건물 렌트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커머셜	비즈니스 빈자리	APT Rental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센트랄 sq., 하버드 sq. 울스턴,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보스턴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49 December 12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치코피의 한국 알레미

제일식품

업소탐방 266

제일식품

149 Broadway Street, Chicopee, MA 01020
413-592-5452

선 가든 힐링센터

지 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시내에서 차로 약 두 시간 떨어진 한적한 동네 치코피(Chicopee). 경기 침체로 한인 업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을 때 30년 동안 꿋꿋이 자리를 지킨 한인 식품점이 있다.

오랜 세월 치코피 지역 주민들에게 유일한 동양(Oriental) 식품점으로 알려진 제일식품(사장 임춘희)은 한국 식품뿐 아니라 일본, 중국, 베트남 식품도 함께 판매되어 외국 손님들의 발걸음이 잦다.

한국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은 물론 쌀과 김치다. 이민의 땅에서는 김치만 있어도 밥이 맛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게에 들어오는 한국 손님마다 커다란 김치통을 잊지 않고 챙긴다.

한편 외국인 손님들이 찾는 제품이 독특하다. 헛개열매 차, 현미녹차, 메밀차, 홍삼차 등의 각종 차에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효능을 적어놓았더니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한다. 실제로 차를 마시고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아 입소문을 탔을 거라는 것이 임춘희 사장의 말이다.

이 외에도 갖가지 생필품이 구비되어 있는데 밍크 이불과 전기 장판이 겨울철 인기 품목이다. 유난히 혹독한 매사추세츠의 겨울은 외국인들에게도 길

고 추운 모양이다. 하루는 다 헤진 오래된 이불을 다 짜고짜 들고 와서는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이라며 묻는 외국 손님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 이불이었던 것이다. 이후 임 사장은 한국 밍크 이불과 전기장판을 구비해 놓게 되었다.

임 씨가 가게를 인수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자폐증을 가진 둘째 딸의 교육을 위해 캐나다에서 건너온 임 씨 가족에게는 만만치 않은 미국 이민의 삶이었다.

하지만 신앙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냈다는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진 듯 딸은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특수학교 중 하나인 메이 학교(May Institute)에 합격했다. 메이 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는데 기적적으로 평생 교육이 보장된 딸을 바라보며 임 씨는 그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약세사리점이나 피자 가게 등 지역 한인 업소들이 하나 둘 문을 닫을 때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힘을 내야 했던 임 씨는 비즈니스 유지를 위한 다양

한 일거리를 만들어냈다. 잔치 음식을 준비하며 가게 뒷편에서는 떡을 만드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무료한 한인들의 주말저녁을 위한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의 DVD 대여도 함께 운영



한다.

임 씨는 “한국 사람은 보이기식의 장사를 하고 싶어하지만 그런 사업은 경기가 나빠지면 버티기 힘들다. 20여년 경력을 비추어 볼 때 작아도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 형 략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lo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F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베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면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장로교총회	978-407-7554
국제대한장로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781-323-1360
대행사추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617-814-3399
한인학교교동협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인주요인(동맹(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배재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대동창회	617-277-0730
중앙대학교동창회	978-390-1552
강원도민회	603-622-8883
충청향우회	617-875-1801
한양대동문회	678-717-8800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말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93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산성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빌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민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781-67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린티어 교회	97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퀸시영성장로교회	781-861-3877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770-2755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산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센(南)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 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미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인스키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샬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샬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508-768-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타케이 헤어디자인	507-88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헤어스타일	617-818-5596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퍼트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캠퍼스(0차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신부인과	
최의웅신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신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심리상담	617-566-1055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나정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타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초이스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978-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	--------------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고영복(메트라이프)보험	978-646-3042
스티브(남술)금융생명	617-538-7851
이윤환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중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1/2
월슬리 7달 아기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주5일(월-금), 급여협상가능
T. 781-492-8786

12/12
미용가위, 애견가위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가위 가는 기술 전수합니다.
T. 917-513-7771

12/12
세탁소 스퍼터 프레스 구함
초보자도 환영, Natick
T. 508-655-5004

12/19
워터다운 새로 오픈한 네일가게
자격증 소지자 구합니다.
T. 857-266-4175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매장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N[매 매] 세탁소매매

12/19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N[매 매]

11/28
필리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 가게
연매출 :\$340,000
순이익 :\$160,000 이상
매매가 :\$160,000
루지애나 주 뉴올리언즈 지역
C. 504-729-8688
T. 985-646-1771

N[매 매]

2/27
한국마켓(미시시피)
성업중인 마켓, 사장님 좋은가격에
급매합니다.
사실분 연락 바랍니다.
T. 512-775-6429

N[구인]

11/28
노스 다코타 인테리어 휘니시 기술자
구합니다.
인테리어 휘니시,케비넷도어, 트림, 유
경험자 환영.
미네소타&노스다코타 지역 포함.
T. 952-292-6090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N[구인]

10/17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안 한식당 주방장과 보
조 각 1명씩 더 모집합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N[구인]

12/19
텍사스 샌안토니오 초가집
가라오케에서 호스레스 구함
숙식제공,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N[구인]

1/2
마담,웨이터 구함
수준높은 실리콘밸리지역
손님 수준높고,팁도 많이 벌 수 있는 기
회
숙식제공(주급+TIP 월 6천 - 1만)
산호세 지역 센스 룸살롱
T. 408-990-5120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아빠 어디가, 6개월~1년 쉰다

“다시 돌아올게요”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아빠 어디가'가 폐지가 아닌 휴지를 선택했다.

최근 MBC '일밤-아빠 어디가'는 폐지가 아닌 휴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일밤'은 신규 프로그램과 '진짜 사나이 시즌2'로 구성될 예정이다.

MBC 예능국 관계자들은 9일 한 매체에 "'아빠 어디가'는 휴지기간을 가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휴지기를 거치며 재정비를 한 뒤 재단장해 나올 것"이라 밝혔다.

육아 예능의 시초인 만큼, 남다른 의미와 시청자들의 애정으로 쉽게 폐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아빠 어디가' 휴지 기간 동안 방송될 후속 프로그램은 김현철 PD와 제영재 PD가 연출하는 애완동물 키우기 콘셉트 예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처음 방송된 '아빠 어디가'는 아빠와 아이가 1박 2일 여행을 떠나는 신선한 형식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soho0901@news1.kr

정승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다시보기 100만 돌파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기자 = 정승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무대 영상 다시보기가 15시간 만에 100만뷰를 돌파했다.

정승환은 지난 7일 방송된 SBS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4'에서 김조한 노래 '사랑에 빠지고 싶다'로 무대에 올랐다. 본선 1라운드에서 김범수의 '지나간다'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불러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던 정승환은 랭킹 오디션에서 '감성 보컬조' 일원으로 본선 2라운드를 치렀다.

정승환의 무대 영상은 이날 8일 오전 9시45분께 100만뷰를 돌파했다. 시즌4가 시작된 후 최단 기간 내 100만

기록 달성이자 'K팝스타' 전 시즌을 통틀어 남자 솔로로서는 처음이다.

정승환이 부른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음원은 네이버뮤직, 멜론, 벅스, 올레, 소리바다 등 10개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원곡인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도 덩달아 음원차트에서 역주행했다.

누리꾼들은 "정승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말 명곡이네", "정승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들을수록 좋은 노래다", "정승환 사랑에 빠지고 싶다, 겨울에 들으니까 더 좋네", "정승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목소리가 참 좋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우리는 비즈니스 겸 썸, 진짜 질투도 난다”

송지호-개리 월요커플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월요커플'로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 개리(36)와 배우 송지호(33)가 속마음을 공개했다.

10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서 '월요커플'로 활약 중인 개리와 송지호의 인터뷰가 전파를 뒀다.

이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질문에 개리는 "송지호와 나는 비즈니스 겸 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결혼해도 썸은 계속될 것 같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에서 송지호와 개리는 서로에게 진짜 질투를 느꼈던 일화도 공개했다.

개리는 런닝맨에 출연했던 게스트 조정석을 지목하며 "면발 게임할 때 질투가 났다. 나랑 할 때는 남동생이랑 하듯이 '이리와' 하는데 당시엔 송지호 눈빛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에 송지호는 민망한 듯 웃으며 "경수진씨가 출연했을 때 질투가 났다. 그때 월요커플 끝이라고 소리까지 질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휴대폰에 각자 이름이 어떻게 저장돼 있냐'는 리포터의 질문에 개리는 망설임 없이 "난 송지호 별명이자 애칭인 '멍지'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리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를 확인시켜 줬다.

이에 송지호는 "난 그냥 '강개리' 이렇게 써 놔다"고 밝히 웃음을 자아냈다.

송지호와 개리는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고정멤버로 활약하며 6년째 달달한 '월요커플'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두 사람은 방송에서 시종일관 미묘한 눈빛을 주고받고 티격태격 싸운 뒤 화해하는 등 진짜 커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송지호 개리 월요커플, 신혼부부 인터뷰하는 느낌이었다" "송지호 개리 월요커플, 송지호는 정말 비즈니스

인 게 느껴진다" "송지호 개리 월요커플, 솔직해서 좋다" "송지호 개리 월요커플, 송지호 얼굴 정말 작더라" "송지호 개리 월요커플, 제발 사귀어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월요커플을 응원했다.

soho0901@news1.kr



클라라 눈물, 정범식 감독 '지나쳤네'

진동팬티 사용 폭로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클라라 눈물 소식이 전해지자 그 이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장충동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워킹걸'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정범식 감독은 클라라의 연기 열정을 칭찬하면서 "성인용품 중 진동팬티가 영화에 등장한다.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영화적으로 만든 거다"고 말했다.

정 감독은 "배우가 영화에서 실제로 입진 않지만 본인이 진동에 맞춰 느낌을 느끼는 연기를 해야 했다"며 "어떻게 디렉션을 줘야 할까 싶었는데 클라라가 촬영 전날 기구를 빌려가도 되겠냐고 묻고 진짜 빌려갔다. 다음날 촬영에 들어가기 전 그 기구를 써 봤다고 해맑게 웃으면서 말했다. 신음 소리를 녹음해온 것을 들려줬는데 너

무 잘 하기도 했지만 열심히 해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털어놨다.

제작보고회 이후 정 감독이 이 발언을 할 때 클라라가 눈물을 꼭 참고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수위 높은 발언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클라라의 연기 열정을 칭찬한 것이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이 클라라에게 충분히 수치스러울 수 있었다는 것.

star@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12월 1일 ~ 12월 7일

한주간 시청률 순위 10

01 LUV	Apink
02 잊지 말기로 해	성시경, 권진아
03 광화문에서	규현
04 HAPPY TOGETHER	박효신
05 세 사람(With 성시경)	토이
06 위아래	EXID
07 나는 달라	HI SUHYUN
08 GOOD BOY	GD X TAEYANG
09 사뿐사뿐	AOA
10 내가 그리웠니	MC 몽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3.4%



2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내사랑 24.1%



3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22.1%

4	SBS	아침연속극(청담동스캔들)	19.4%
5	KBS2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18.2%
6	KBS1	KBS9시뉴스	17.9%
7	MBC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17.5%
8	KBS2	해피선데이	16.4%
9	KBS2	개그콘서트	14.3%
10	MBC	무한도전	13.5%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엔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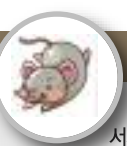
				3				2
				1	4	7	9	
	6			7	8		1	
		2				9		8
			1		2			
6		4				1		
	5		7	9			6	
	8	6	4	2				
1				8				

12월 14일 - 12월 20일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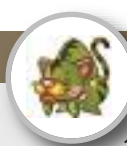
쥐띠 | 모든 일에는 순서가

● 운수: 급하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 때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 금전: 최상의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미리 대비해두면 도리어 금전적으로 유리하게 풀릴 것입니다. ● 애정: 조금이라도 배려를 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것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5, 20일 길일. 14, 17일 주의.



소띠 | 생각했던 것보다

● 운수: 오래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다시 한번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의 힘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모든 것을 털어놓으세요.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6, 19일 길일. 14, 1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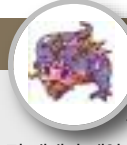
범띠 | 먼저 깃발을 쏘는 자가

● 운수: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남보다 빨리 시작해서 먼저 깃발을 쏘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 금전: 궁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나가야 할 돈이 늘어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게 되니 기분 좋게 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애정: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선 믿어주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서로가 편안해집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7, 20일 길일. 15, 16일 주의.



토끼띠 |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 운수: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려면 가급적이면 일찍 귀가 하도록 하세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 금전: 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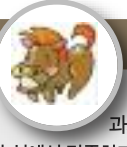
용띠 | 기대 이상의 좋은

● 운수: 막연한 두려움으로 망설이던 것이 있다면 용기 있게 해보도록 하세요.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금전: 매매나 계약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지금의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부부가 화목하니 가정에 온기가 듭니다. 사귀고 있는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5, 19일 길일. 17, 20일 주의.



뱀띠 | 자신의 삶에 악이

● 운수: 당장 듣기 좋은 사탕발림 같은 말에 따라가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쓴 말에 귀를 기울여야 자신의 삶에 악이 되어줍니다. ● 금전: 길흉이 반반으로 뒤섞여서 오는 운세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보다 정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아니다 라고 생각 되면 더 정이 듣기 전에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6, 20일 길일. 15,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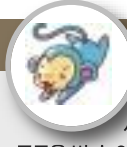
말띠 |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 운수: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는 부족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 금전: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한 욕심을 내다가는 그나마 들어올 이득도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 애정: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길게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90, 78, 66, 54, 42, 30년생은 14, 17일 길일. 19, 2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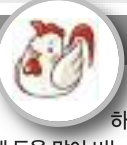
양띠 |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 운수: 내가 아는 가족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과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주머니가 비게 됩니다. ● 애정: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인 사과는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4, 18일 길일. 17, 2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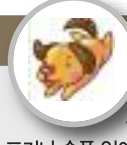
원숭이띠 | 여러모로 얻는 것이

● 운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세요. 대인관계로 인해서 여러모로 얻는 것이 클 것입니다. ● 금전: 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고 금전적인 이익도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 상대에게도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서로간의 대화도 잘 통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6, 19일 길일. 15, 18일 주의.



닭띠 | 시간을 두고 천천히

● 운수: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서툴러서 소외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까. ● 금전: 현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애정: 한 번 굳게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야 하겠습니까. 93, 81, 69, 57, 45, 33년생은 17, 20일 길일. 16, 19일 주의.



개띠 | 희비가 교차하는

● 운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희비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누구 때문에는 기쁘고 웃을 일이 생기고 누구 때문에는 마음이 아프거나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 금전: 평소보다 소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체면유지나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가다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이성의 유혹이 따르는 때입니다. 자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94, 82, 70, 58, 46, 34년생은 16, 17일 길일. 14, 20일 주의.



돼지띠 | 미루던 일을 해보도록

● 운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나 미루던 일을 해보도록 하세요. 평소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던 돈도 무난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힘들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9일 길일. 15, 18일 주의.

EXID '위아래' 거침없는 역주행

SNS 홍보 중요성 부각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팀 기자 = 걸그룹 이엑스아이디(EXID)의 노래 '위아래'가 거침없는 역주행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엑스아이디의 '위아래'는 지난 8월 발표된 노래다.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위아래'는 최근 온라인에서 소위 '직캠'(팬이 직접 찍은 영상)이 인기를 끌며 노래가 각종 음원차트 최상위권까지 오르는 역주행을 했다.

화제가 된 직캠 속에는 핫팬츠를 입은 멤버 하나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이 SNS에서 '섹시 영상'으로 화제가 된 뒤 '위아래'가 멜론, 엠넷 차트 등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에 링크됐다.

이엑스아이디의 역주행 사례는 아이돌 생태계에 SNS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가수 '크레용팝'의 '일베 논란'이 '빠빠빠'의 인기로 이어졌듯이, 아이돌이 범람하는 가요계에서 이슈 메이커가 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안무와 의상을 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한 온라인 바이럴 회사의 대표는 "방송엔 제약이 있다. 의상부터 안무까지 수위를 대폭 낮춰서 내 보내야 한다. 수정한 안무와 의상이라 원래 준비한 무



대를 보여주기 힘들다"며 "반면 행사장에서는 원래 준비한 무대를 모두 보여줄 수 있다. 그 무대가 '직캠'으로 SNS에 올라왔을 때 효과는 엄청나다"고 소개했다.

이어 "SNS 특성상 한번 화제 되고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수십, 수백만 건까지 조회수가 올라간다. SNS에서의 화제는 포털사이트로 옮겨가고 음원 차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위아래'는 신사동호랭이 작곡,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시건방 춤' 카라의 '멜빵춤' 등을 만든 야마엔 핫칙스가 안무를 맡았다.

ssoho0901@news1.kr

'오만과 편견' 최진혁

"타사 경쟁작과 붙어 저도 본전이라 생각"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배우 최진혁이 타사 경쟁 드라마를 제치고 시청률 1위를 한 소감을 말했다.

최진혁은 9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M라운지에서 열린 MBC 월화드라마 '오만과 편견'(극본 이현주/연출 김진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처음에는 대진원이 안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차피 상대방은 한석규이고, '노다메'인데 붙어서 저도 본전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시청률 1위를 해서 기분이 좋다. 일단 함께한 선배배우들과 감독님이 잘 표현해줘서인 것 같다"며 "

어려운 드라마인데도 시청자들이 많이 사랑해주셨다. 시청자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로맨틱 코미디 등과 달리 우리 드라마가 차별화되어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진혁은 극 중 소년 급제한 고졸 출신 수재로 검사 경력만 10년째인 구동치 역을 맡았다. 구동치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의 소유자다.

'오만과 편견'은 법과 원칙, 사람과 사랑을 무기로 나쁜 놈들과 대적하는 검사들의 이야기로 돈 없고 힘없고 죄 없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는 검사들의 고군분투를 그린다.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reddgreen35@news1.kr



규현 게스트하우스, 명동 한복판에 있는 그 건물?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규현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른다.

지난 10일 밤 11시15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라스)에서 강남이 규현의 게스트 하우스를 언급했다.

규현은 "명동에 게스트 하우스를 오픈했다. 관광객들이 엄청난 시대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남은 "지난달 촬영 때문에 갔다. 선배를 찾으러 가는 프

로그램이었다"며 "규현 부모님을 찾아갔다"고 했다.

규현은 이어 "게스트 하우스에 부모님과 누나가 있다. 60일 정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은 "마당도 있고 노래도 할 수 있다"며 부러워했다.

김구라는 "규현이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모은 돈과 은행 대출도 받았더라"고 폭로해 규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star@news1.kr



김준호 "실적 기여도 1위는?"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개그맨 김준호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실적 기여도 1위 개그맨들을 공개했다.

김준호는 11일 밤 11시10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의 '한류 특집'에서 "개그맨들의 실적 기여도에 따라 블루, 레드, 화이트로 레벨이 나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블루 멤버는 김준현, 이국주, 김지민"이라며 "레드 멤버는 김

원호, 양상국이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김준호는 "화이트는 김장군과 권재관"이라고 밝혔다.

aluem_chang@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보스톤 전망대

〈김씨의 뿌리(25)〉

훈족과 신라, 가야의 친연성 (4)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해 대성동 13호분 출토. 왕의 상징물인 파형동기. 방패에 부착

고대 북방 유목민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이생과 똑같은 후생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품을 시신과 함께 부장했고 생전에 부리던 노비나 시녀들을 순장시켰다.

우리나라도 고조선 때 순장의 흔적이 있고, 위지동이전에 이르기를 부여에는 대규모로 순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반도에는 신라와 가야에서 순장 풍습이 있었는데, 신라의 경우는 지증왕(AD 501~AD 514) 때에 순장을 법으로 금했지만 도성에서 떨어진 지방에서까지 순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듯 싶다.

신라와 가야의 순장이 흉노식 묘제인 적석목곽분이나 목곽분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순장 풍습이 북방 흉노인들이나 부여로부터 물려받은 풍속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금관가야 왕족들의 무덤으로 생각되는 김해 대성동 13호분의 경우는 왕의 상징물, 위세품인 파형동기가 6점, 통형동기 3점이 출토되어 왕의 무덤이 확실한데, 3사람 순장자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대성동 1호분에서는 5명의 순장자가 나왔고 말머리로 짐작되는 뼈가 발견되어 가야에서도 흉노처럼 생전에 타고 다니던 말을 순장했다고 짐작되는데, 경주 천마총에서도 말을 순장한 흔적이 보인다.

흉노의 후손인 몽골 칭기스칸 시절에는 대칸의 장례식 때 말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순장하곤 하였다.

대가야의 수도 고령 지산동 44호분에는 무려 32명의 순장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황남대총 남분에는 60대의 남자가 피장자인데 15세 정도의 여성이 순장되어 있었다. 그외에 양산 부부총, 영덕 괴시동, 의성탑리, 함안 말산리, 함천옥전 고분, 성주 성산동, 부산 복천동 등 경상도에 걸쳐 많은 순장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유럽의 사학자들 중에는 훈족의 원류로 투르크 계를 지목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훈족과 투르크 계 사람들은 매장 방법이 아주 다르다. 훈족, 흉노, 몽골과 한민족은 시신을 매장하지만 투르크인들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훈족의 원류가 될 수 없다.

김해 대성동 무덤군은 금관가야 김씨 왕족들의 무덤으로 지목되어 왔다. 3세기 말까지는 대성동 무덤군에는 순장이 없었는데 3세기 말부터 순장 무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3세기 말경에 순장 문화를 가지고 있던 북방 유목민족

들이나 부여인들이 김해 지역에 들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누구? 앞으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대성동 57호분은 아주 이색적인 고분이다. 57호분에 매장된 묘주의 발치 쪽에 20~30대 여성 3명이 나란히 가로 방향으로 누워 있는데, 이들은 묘주를 따라 죽은 순장자들이다.

이들의 머리 밑에서는 5개의 철제 투구와 갑옷들이 발견되었고 여자들의 다리 근육이 발달한 것으로 미루어 여자 전사로 생각되어 진다.

57호분은 4세기 후반의 무덤이었다. 서기 400년에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5만의 군사를 남정(南征) 시켜 신라와 연합해서 가야, 왜 연합군을 종발성(지금의 동래 복천동?)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가야와 같은 작은 나라가 고구려 같은 대국과 싸우려면 여자들도 힘을 합쳐 전투에 참여하여야 했을 것이다.

〈편두: Cranial Deformation〉

편두는 어린애가 태어나면 눕혀 놓은 상태에서 이마를 돌로 눌러 이마와 뒷머리를 평평하게 만든 머리 형태를 말한다.

몽골에서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훈족의 이동경로 곳곳에 있는 분묘에서 머리의 이마와 관자놀이가 눌러 있고 머리통이 긴 편두가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훈족에게 편두를 만드는 풍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훈족의 원류로 생각되는 흉노족들은 편두 풍습이 없다.



김해 대성동 출토. 왕의 상징물 통형동기(창끝 꾸미개)

동이위지전에 진한(신라) 사람들은 모두 편두였다는 기록이 있고 가야의 경우에는 김해 예안리 고분 발굴에서 수습한 190구 인골 중에 10구가 편두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4세기 경에 건조된 북방 유목민들의 묘제인 목곽묘에서 발견되었다. 가야의 경우 5세기 이후에 형성된 분묘에는 편두를 발견할 수 없었다.

신라의 최치원은 신라국사 자증대사의 공덕비에 법흥왕(514~540)이 편두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금령총에서 출토된 토용 기마인물상의 말 탄 기사 역시 편두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를 선택한다면 신라 금관이 꼭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신라 금관의 머리테 길이가 평균 53.4cm에 불과하다. 참고로 현재 한국 성인들의 머리둘레는 57.5cm로 신라



국내 최대 순장묘. 대가야 고령 지산동 44호분

금관보다 4cm를 상회한다. 그렇다면 신라 왕이나 왕후는 머리테 길이가 아주 적은 신라 금관을 어떻게 머리에 썼을까? 그들 왕이나 왕후가 편두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편두는 동이족들의 보편적인 특성이었다. 하지만 5세기 이후에는 편두 풍습이 사라지게 된다. 편두 관습은 이집트, 북아메리카 인디언, 동북아, 인도, 시베리아, 마야 문명에 있었던 풍습이었다. 고조선 때도 편두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에는 편두 풍습이 없었다.

편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마야 사람들은 뱀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편두를 해서 뱀의 머리처럼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두번째로는 고대 사만, 여사제, 무녀 등이 특수한 신분을 만들려고 시도했고, 세번째는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했다는 설이 있다. 편두를 하면 낯날이 오펝 서기 때문이라는데, 고대의 미인 기준이 현대처럼 오펝 선 낯날이라는 증거는 없는 것이다.

김해 예안리의 경우는 편두를 가지고 있는 인골이 가난한 여인들이 많고(부장품이 없었다), 비슷한 처지의 여인들이 함께 편두를 한 점으로 미루어 공동체가 함께 편두를 함으로써 가족과 집단의 행복과 번영을 염원했다는 가설도 있다.

아시아에서 인도를 제외하고는 그리 흔치 않은 편두 풍습을 신라, 가야와 훈족이 공유한 것은 또 한 번 그들간의 친연성을 확인하는 항목이 될 것이다.



말탄 기사상도 편두 얼굴임. 금령총 발굴 국보 91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학업성적을 좌우하는 Academic Writing 향상 및 SSAT/ SAT/TOEFL 목표점수 달성

2014 겨울방학 학업 향상 프로그램

12월 20일부터
1월3일 까지
(12/24,25, 31,1/1일은 제외)

오전 9:30 부터 오후4시까지
집중강좌



SAT

- ☐ Vocabulary
- ☐ Grammar
- ☐ Critical Reading
- ☐ Essay



TOEFL



**ETS Official Test
& Teaching Center**

*개별과목 선택가능하며, 선택에 따라 학비가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TOEFL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shortcut만 찾다 오히려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THAS의 특별한 TOEFL 수업방식을 바탕으로 연습한 덕분에 TOEFL 고득점은 물론 학업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 R.Kim (THAS Student)
Johns Hopkins 대학 입학



“For this important time in a student's career, we provide the edge to get ahead and master the skills necessary for these exams. I really enjoy teaching and developing the students' academic abilities, and I feel that it really does make a difference.”

- William Jameson (THAS instructor)
Harvard University



“THAS helped me to gain the greatest result in a very short time. It was not only a test preparation institute, but moreover was my mentor, who encouraged me and brought confidence in me. Above all those things, the best thing about the academy was that it wasn't just a place for me to go and study, but also was a place where I felt cared regarding my happiness and future. I believe it was an excellent choice in my life that I chose to take classes at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 V. Maeng (THAS Student) Wellesley College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617-492-2722



하버드역에서 1분
30 JFK ST, 3RD FL., CAMBRIDGE MA 02138
www.theAcademy.ac



SDU UNIVERSITY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제 불가능이 없다”

{ 제한 없이 }

공간에 제한 없는
PC에서
시간에 제한 없이
24시간 내내
온라인으로 수강가능!

{ 모두 인정 }

한국대학도
인정하고
미국대학도
인정하는
대학 교양학점 취득!

서울디지털대학교 시간제 등록

<http://time.sdu.ac.kr> · 82-2-2128-3232 · time@sdu.ac.kr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신영의 세상 스케치

477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전주에서 담아 온 따끈따끈하고 훈훈한 정...

이번 여행에서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전주에서의 며칠이 참으로 가슴 따뜻한 느낌으로 있어 행복하기 그지없다. 몇 년 전 전주를 찾았을 때도 둘러봤던 곳인데 가슴으로 만나기보다는 눈으로 구경했던 모양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차근차근 만나보고 싶어졌다. 전주에는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이 몇 계신다. 전화 한 통화면 마주 앉아 맛난 저녁과 곁들인 차 한 잔 그리고 그윽한 곡주 한 잔으로도 넉넉한 만남이 될 선생님들이 몇 계신 것이다. 이를 충분히 알면서도 내 마음을 뿌리치며 연락을 드리지 않고 홀로 오롯하게 여행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여행에서는 '혼불'의 최명희 선생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제대로 만나고 싶어하였다. 한 이틀 여행을 계획하고 전주로 출발했었다. 숙소를 미리 정하지 않은 이유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기사분께 한옥마을로 가자고 부탁을 했다. 그것은 저녁도 먹어야겠고 숙소도 그쪽으로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저녁을 먹고 잠시 한옥마을 주변의 숙소(민박)를 둘러보니 미리 예약한 것이 아니라 가격도 그렇고 마음이 영 편질 않았다. 아무래도 시내의 화려한 네온사인의 숙소를 찾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고 시내를 향했다.

그렇게 숙소를 정하는데 친절하고 숙박하기에 경제적으로도 좋은 주인을 만났다. 그렇게 같은 장소에 이틀을 머물며 전주의 한옥마을과 최명희 선생 문학관을 돌아보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 여행의 주목적인 조카의 결혼식을 마치고 제대로 여행 스케줄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그러데 이상하리만큼 전주의 도시가 마음에 그렇게 남는다. 아무래도 최명희 선생의 무덤을 둘러보지 못해 마음에 못내 서운함이 남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다시 전주를 찾기로 마음을 먹고 전주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물론, 지난 여행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었던 숙소의 주인장이 감사해 자연스럽게 숙소를 정했다.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둘러 전북대학교의 학술림(생태공원)이기도 하고 최명희 선생 무덤이 있는 건지산 중턱의 '혼불문학공원'을 다시 찾게 된 것이다. 최명희 선생의 무덤을 찾으러 올라가는 길에 반갑게 맞아주기라도 하듯이 하늘과 땅을 이어 눈송이가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한다. 아직은 오가는 이가 보이지 않아 '혼불문학공원'비 앞에서 내 모습도 함께 담고 싶었는데 그만 담지

못하고 무덤 앞에서 모습 하나 담아왔다. 그렇게 공원을 돌아내려 오는 길에 눈송이가 굵어지더니 이내 눈으로 바뀌고 전주의 '장덕사'가 있어 둘러보는데 가히 눈이 쌓이고 덮이는 작은 사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 다음 날은 남원으로 갈 계획으로 있었다. 최명희 선생 문학관이 처음 세워진 곳이기도 하기에 한 번 더 만나고 돌아오고 싶어하였다. 그런데 전주에도 눈이 내렸지만, 서해안 쪽에 폭설로 주변에도 폭설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다시 서울행 버스를 타려고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버스 출발 시간이 40여분이 남은 터라 무얼 할까 싶어 터미널 대합실 내부를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반갑게도 '북 카페'라는 꽃말에 도서들이 가득 찬 책장이 보인다. 그리고 작은 책상에 '방명록(도서명부)'이 얹혀있고 마스크를 한 할아버지 한 분이 허름한 걸상에 앉아 계신 것이다.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내 '북 카페'에 나도 기웃거리며 책장 안의 책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박경리 선생의 시집 우리들의 시간'을 꺼내어 들었다. 테이

블의 방명록과 작은 의자에 앉은 할아버지께서 도서목록에 서명해달라고 하신다. 그렇게 서명을 하고 책을 뒤적거리던 중 할아버지와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처럼 시외버스터미널 공간에 '북 카페'가 있어 참으로 넉넉해 보여 좋다고 말씀드리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다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책을 보는 이들이 많이 줄었다면 쓸쓸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북 카페'가 열리게 된 것은 8년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에 도움을 준 곳이 전북시립도서관이며 지금은 도지사가 되셨지만, 그때는 시장을 하셨던 송하신 도지사님의 따뜻한 마음의 후원과 배려가 있어 가능했었다고 몇 번을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신다.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 일을 하고 있지만, 덕진노인복지회의 여러 노인분들이 돌아가며 함께 일을 하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 노인의 말씀을 들으며 전주의 시외버스터미널 '북 카페'에서의 나눔이 어찌나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하던지 차갑고 매서운 선달 추운 날씨에도 훈훈한 정이 아직 남아 흐르고 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붉은색 우체통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아내는 김장을 담궜다. 지난달 말末이었다. 김장이래야 몇 포기 일테지만 그래도 힘겨운 일인건 안다. 지켜만 보던 나는 눈만 깜빡였다. 오래전, 내 형님은 구멍이를 꿇고 아버지를 도와 김장독을 문었다. 나야 그때나 지금이나 그저 쳐다만 본다.

십이월,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크리에 집안팎 장식에 불만하다. 전기값이 만만치 않을게다. 별스런 걱정엔 혼자 쓴웃음 짓는다. 이른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이 배달되는 시절이기도 하다. 이젠 한두장에 그친다만 말이다. 보내지 않았으니, 받을 기대도 없다. 쓰고 보내는 일은 중노동이다. 이 지면을 통해 성탄절 카드로 연하장으로 인사를 대신 한다. 비싼 지면을 사적私으로 썼다. 복된 성탄절과 알찬 연말연시를 맞기를 간절히 빈다.

보스톤지역 우체국은 은근하다. 오히려 푸

근하다는게 옳은 표현이다. 시티마다 타운마다 우체국이 변화가에 있다. 겉과 안은 모두 정주하고 뜬 건물들이다. 웅장하지 않고, 다소곳하다 해야 할듯 싶다. 겸이불루(儉而不陋)라는 말이 그럴듯 하다. 검소하고 소박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누추한 건 아니란 말이다. 옛적 우리네 한국우체국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하지만 페드랄익스프레스나 디에치엘, 유피에스 우편물 수거함이 더 위용당당하다. 우체국 질푸른 우체통은 색이 바랬다. 이젠 늙어가는듯 싶다. 구석으로 몰려 종가집 한옥처럼 덩그러니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다. 젊고 빠른 페드엑스에 밀리고 있으니, 곧 추억 속으로 사라질 겐가? 설마 그럴리아 없겠지만 아쉬움은 크다. 우체국이 노쇠해 간다.

청마 유치환 선생이다. 이영도시인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다 했다. 연애편지인데,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위 우체국에서 보냈을게다. 우체국은 영화에 나오는 체구 작은 모습일게다. 한적하기가 옴은 졸음을 불렀을지도 모른다. 우체통은 붉은 색이다.

사랑하는 것은/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라
오늘도 나는/에머랄드 빛 하늘이 환히 내다 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

사랑하는 것은/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유치환, 행복)

여전엔 우편엽서도 편했다. 손바닥만 하던 것 그것 말이다. 짧게 쓴 엽서를 붉은색 우체통에 넣으면 마음은 언제나 아득했더랬다. 제시간에 도착 할겐가? 받는 사람의 표정이 먼저 떠올랐다. 성탄절 카드와 연하장은 페드엑스로 보내지는 않는다. 연하장은 역시 우체국에서 보내야 제맛이다. 성탄절 카드를 붉은색 우체통에 넣고 싶다. 연애편지를 보내는 것은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라. 엽서 보냈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네라. 참 요샌 일반 우편물 우표값이 얼마더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데살로니카 후서 3:17)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이제 미국과 중국 고객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타겟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전격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내년 2월 발간하여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매출을 한단계 높여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선정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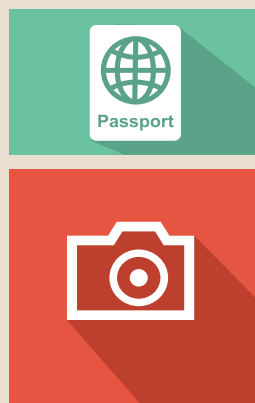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안 고객들을 한국 업소로 불러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내년 매출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항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배포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60 망국의 기로에 선 조선의 무예(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수박은 다만 군사를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군사적인 용도로만 쓰인게 아니라 현재의 레저(Leisure)나 사회체육 활동처럼 변천되었다. 또한 시대가 흐름에 따라 문무文武 양반들만이 향유하지 않고 일반백성들을 포함한 여러 계층에서 호신용으로 수련하고 오락적으로도 즐기게 되었다. 고려시대부터 사용하여 온 수박이란 용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서에서는 사라지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권법이란 용어가 대체되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우리의 수박이란 용어가 계속 전해 내려오다가 훗날 변, 수박, 시박, 수벽 등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이며, 기예상의 동작도 많이 발전되었거나 변화되었다고 본다. 모든 문화가 변모하듯 수박 역시 국방의 수단과 왕실의 의전과 연회에서 쓰였다가 개인의 심신수련용의 용도로의 변화도 있었고 말기에 접어들어서는 나라안의 온 백성들이 모두다 즐기는 오락과 유희를 넘어 또 다른 형태의 '민속놀이'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일부의 참 무예인들은 정통무예의 가치와 그 기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불행히도 원형의 전승은 끊겼지만 다행히 사라져가던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복원하

여 조상의 얼을 후대에 전해 주려고 무예도보통지를 바탕으로 수련하는 무예인들이 다수있다. 권법은 택견과 다른 무술이 아니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조대 이전까지는 수박, 수박희가 무예용어의 주류였다. 그 후 수박이란 용어는 실록에서 사라지고 권법이 등장한다. 아마 중국과의 많은 무예 교류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가 정조대를 지나면서 택견 등의 용어가 실록에 등장한다.

택견은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무예 중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예이다. 이렇게 귀중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가 일제강점기를 맞아 사라질뻔 했다. 구한말 구식군대의 해체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잃었다. 그 중 하나가 전통무예이다. 즉 개화기에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외래무예가 유입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규제와 탄압으로 택견이나 수박같은 우리 고유의 무예 수련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24반의 무예, 즉 유일한 맨손무예인 권법과 창술, 검술 등 땅에서 하는 지상무예18기와 기창과 격구 등 말을 타고 기병들이 하는 마상무예 가운데서 원형이 보

존되어 전하는 무예는 거의 없다. 이 권법은 택견이란 이름으로 전하다가 일제 강점기에는 은둔을 하게되었고, 일본의 무술인 가라데가 유입되어서 우리나라 사회에는 가라데가 모든 무술을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당수도唐手道, 공수도空手道 등의 용어로도 불리었다. 물론 당수나 공수는 가라데의 한자표기로 같은 뜻이며 같은 무술이다. 오키나와에서 일본 본토로 무술이 전해지기 전에는 당수로 표기하였다. 중국에서 전래되었기에 '당나라 무술'이라고 당수로 표기했으며, 가라데라고 불렀다.(당나라 시대에 전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토로 전래된 후에는 공수로 표기했으며 역시 같은 음훈이다. 일본어는 음독音讀을 하는 우리말과 달리 훈독訓讀을 하기 때문에 당수나 공수나 모두 가라데로 읽는다. 그 후 화수도, 태수도 등의 용어로 불리다가, 1955년 부터 '태권도'라고 불렀다. 이는 태권도라는 무술이 새로 창작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존재하여 수련하던 태수도를 단지 개명하였다.(당수도, 공수도 등도 포함될 수 있다)

%)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태권도 역사의 일부 인용



백성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미국의 부동산 거래제도는 다른 모든 제도와 같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또한 실용적이어서 소비자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유용하게 되어있다. 이곳 MA주의 부동산 거래제도는 미국 내 다른 어느 주의 부동산 거래제도보다도 더 확실하고 정확하며 순리에 맞게 잘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동산 거래제도가 오늘날 이만큼 모든 사용자들에게 공평하고 편리하며 합리적인 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 놓은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MA 주의 경우, MA 주 부동산국이라는 정부기관과 민관기관인 MA 주 부동산 중개인협회라는 두 기관이 연대하여,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또는 에이전트와 고객 간에 모든 법원의 분쟁들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 그때 시대의 변화와 부동산 산업발전의 추이에 따라, 그에 알맞게 규정과 법을 개정하고 수정하면서 잘 다듬어 온 결과다.

한 예로 내가 처음으로 부동산업을 시작했던 1993년도만 하더라도 주택구매에 필요한 계약서는 단 두장 이었고, 주택판매를 위한 리스트 계약서도 세장으로 족했었다. 그만큼 거

래방식이 지금에 비하여 단순하고 투박했었다.

그런데 1800년대의 서부개척시대에는 그저 구매자와 판매자 끼리 서로 만나서 말로만 오케이 해도 그것이 계약으로 성립되던 때도 있었다. 그때는 부동산중개인은 커녕, 공증도 필요없이 그저 두 사람이 말이나 마차를 타고 카운티 오피스에 함께 가서 부동산등기부에 싸인만 해주면 거래가 끝났던 시대였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하여 감독상 등, 여러 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왕년의 유명한 서부영화 '빅-컨츄리'에서 보면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강가에 목장을 가지고 있는 목장주 '진 시몬즈'가 새로이 나타난 '그레고리 펙'에게 자신의 목장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연인처럼 강가에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진-시몬즈가 목장을 넘기겠다고 말한 후, 서로 악수를 하면서 거래가 성사된다. 그리고 나중에 구매자 그레고리 펙이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자신이 그 목장의 새 주인이라고 신고하고 사인하면 명의가 이전되고 거래가 끝나게 된다.

그 이전의 초기 서부개척시대에는 누구든지 아무데나 무주공산의 넓은 평원에 먼저 말을 타고 달려가서 말뚝을 박고 펜스를 치면 자

기 땅이 된 역사도 있었다. 아주 오래 된 옛날 영화 씨마론에 보면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가서 많은 개척자들이 마차와 말을 몰고와서 넓은 평원에 한데 모여 보안관의 출발번호 총소리가 울리자 일제히 마차와 말을 몰고 앞으로 달려 나가며 자신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경주를 벌이는 장면은 매우 역동적이고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주택 구매의 경우, 구매에 필요한 기본 계약서는 약 13장, 그리고 판매에 필요한 리스트 계약서는 약 9장 정도의 기본 서류가 필요해질만큼 많고 복잡해졌다. 어찌 보면 세월이 갈수록 더 사람들이 영악해지고 세상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세상이 나빠지고 사람이 영악해져서가 아니라, 시대의 발전과 과학 및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특히 요즘 같이 전산화가 잘 돼 있고 통신수단이 잘 발달된 시대에는 부동산 거래도 이제 전자거래로 될 만큼 시대가 좋아졌다. 따라서 그에 걸맞게 거래되는 서류도 더욱 더 정밀하고 구체화 되어 대부분의 고객들이 평생에 몇 번 살까 말까한 가장 중요한 재산목록제 1

호의 관리와 양도에 작은 하자나 이상이 없도록 부동산 회사와 은행, 그리고 변호사 회사를 비롯해 10여개의 많은 관련기관들이 함께 상호보완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미국 부동산 거래의 변천

희망사항

홀로 된다는 것

숙녀에게

미워서 미워질때

지금 이대로

사랑 그놈

비와 당신

로라

그대에게

새들처럼

너무 늦었잖아요

사랑이 올까요

구름 닮은 친구

그대 내게 다시

그대만의 모습

저 하늘을 날아서

가장 슬픈날의 왈츠

너에게로 또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대

안녕이라 말하지 말아요

내게 줄 수 있는건 오직 사랑 뿐

싱글맘을 위한 희망나눔

변진섭 콘서트

5인조 하영석 밴드 pav M&C

2015년
1월15일
목요일 오후8시

티켓

\$30, \$50,

\$70, \$90,

VIP\$120

(가수와 사진촬영 가능)

판매처

교차로신문사

718-460-0114

단체티켓 문의 환영

한양마트

티켓마스터

www.ticketmaster.com

뉴저지 버겐팩

Bergen Performing Art Center

30 North Van Brunt St.
Englewood, NJ 07631



셔틀버스 운행 (뉴욕 플러싱)

선착순 100명
왕복요금 \$20

1차 출발: 오후 6시 한양마트 앞
2차 출발: 오후 6시20분 공영주차장 앞

**본 버스 티켓은 예약 또는 구매시 함께 구매하여야 합니다.

주최: 교차로 신문사 레이디경향

주관: Bergen PAC

특별후원: KOREAN AIR ASIANA AIRLINES

언론후원: 교차로 협의회 버클리시장 코스타카뉴스

이모션 웰빙 KEN

후원: 동포상회

wellbeing PLUS PRIME SOURCE ASSOCIATE INC.

우리사우나 Woori Sauna & Spa

한양마트

코리아나투어 KOREANATOUR.COM

tbo PLAY

다모탈모병원

핑크네일

에릭오 구강악안면외과

NVE BANK You belong here.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전혜린, 그리고 왜 아무말도 하지 않았을까?’ 올바른 성 교육 청소년 13세-18세 IX

지난번 칼럼을 통해 자존감 형성의 여러가지 요인들 중 건강한 오디프스 과정은 청소년 자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피력하였다. 첫번째로 아버지와 관계의 부재를 아버지의 이상화(Idealization)로 대체시키려 했던 ‘제인’의 사례를 통해 그녀의 아버지의 미성숙한 오디프스 과정이 어떻게 제인의 미성숙한 오디프스 고착을 갖게 하였으며,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왔는가를 설명하였다.

이번 칼럼을 통해 딸에 대한 아버지의 지나친 애착과 보호 또한 청소년의 미성숙한 오디프스의 과정과 불안정한 자존감 형성하게 될 것을 설명하려 한다. 독일 문학가로서 두 권의 유고집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를 남기고 서른 한 살에 요절한 ‘전혜린’과 그녀의 아버지의 지나친 애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혜린은 평안남도 순천에서 1934년 1월 1일에 전봉덕의 1남 7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부유한 관리였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일제 식민지의 험악하고 굶주렸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러시아계 양복점에서 구할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 그녀의 아버지 전봉덕은 그녀를 지나치게 애착했고 극단적으로 편애했다. 그 때문에 그의 부모는 자주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고 한다.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갖게 해줄 수 있는 아버지의 존재는 ‘신’과 같았다. 훗날 전혜린은 “내 한마디는 아버지께엔 지상 명령이었고, 젊고 멋있고 남들이 천재라 불렀던 아버지를, 나를 무제한하게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옹호한 아버지를 신처럼 숭배했다”라고 회고했다.

경거여중고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지만, 1955년 가을 돌연 전혜린은 법학을 그만두고(21세) 문학공

부를 위해 독일 유학을 떠난다. 아버지에게 했던 처음의 반항이었다. 뮌헨의 슈바빙은 그녀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온전히 열중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그 후, 그곳은 그녀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뮌헨대학에서 독일 문학을 연구하는 중 ‘루 살로메’에 열중했다. 도서관에서 루 살로메의 전기를 읽다가 그 사진을 몰래 내려왔을 정도로 루 살로메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녀의 자유로운 생애는 일년도 못가, 또 다시 ‘아버지의 뜻’에 따른 삶을 선택해야 했다. 독일 유학 중 법학도인 김철수와 22세에 결혼을 하였고, 24세에 딸을 낳았다.

전혜린은 1959년 독일 유학을 끝내고 귀국하여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맡는 한편 번역 작업을 했다. 1964년 남편과 합의이혼한 후, 그녀는 처음으로 열병과도 같은 사랑에 빠졌다. 인습과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연하 제자와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제자 어머니가 찾아왔고, 제자는 결국 전혜린을 떠났다. 이별의 고통에 견딜 수가 없어서일까? 그녀는 끝내 1965년 1월 10일 그녀의 생을 마감했다.

사망하기 사흘 전 그녀가 ‘장 아제베도제’에게 보내지 않았던 두 통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나는 왜 너를 이렇게 좋아할까? 비길 수 없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너를 좋아해. 너를 단념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겠어. 너의 똑바른 성격, 거침없는 태도, 남자다운, 총명, 활기, 지적 호기심, 사랑스러운 너의 얼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내가 원소로 환원하지 않도록 도와줘! 나도 생명있는 뜨거운 몸이고 싶어. 가능하면 생명을 지속하고 싶어. 그런데 가끔 그 줄이 끊어지려고 하는 때가 있어. 그럴때면 나는 미치고 말아. 나를 살게 해줘!”라고 썼다.

전혜린의 아버지를 살펴보자. 아버지 전봉

덕은 22세에 경성사범학교교원을 통해 29세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 행정 양과에 합격하면서 탄탄대로를 걸었고, 이후 조선 총독부에서 관료생활(1940), 평안북도 경찰부 수송보안과장(1945), 미군정경부 공반과장(1946), 경찰전문학교 부교장(1947), 1948년 친일경찰탄압을 피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이승만정권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섭렵하며 한국법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2002년 친일파로 그의 행각이 들어나고,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파 명사전에 그의 불명예가 기록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야심가였고 성공에 대한 계산이 빨랐다. 겉은 훌륭한 업적으로 치장되어 있는 ‘신’의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속은 자신의 치정을 숨기는 ‘비겁한 겹쟁이’였다. 자신의 나르시즘으로 자신의 치부를 삭제했다. 엘리스 밀러(Alice Miller)는 부모가 주는 찬사와 지나친 애착과 편애를 받고 자라난 클라이언트의 심리치료를 하며 경험했던 임상케이스를 “The Drama of the Gifted Child(1979)”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 밝혔다.

자신의 특별한 달란트, 비상한 머리로 우수한 업적으로 인해, 부모의 막대한 지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고통받게 된다고 한다. 자식의 성취를 부모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기도취의 만족감에 빠져, 오히려 자식을 성공의 틀에 억지로 끼워넣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부모가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자식을 노예화시키는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나르시시틱 학대’라고 했다.

전혜린의 아버지는 그녀의 천재성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녀의 지식 습득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했고, 그녀의 성취와 업적에 지나치게 애착했다. 자신의 법률 일의 뒤를 잇게

하고 싶어서 서울법대를 보냈다. 그 공부가 너무 싫어 문학공부를 하러 간 딸의 자유를 무시하고 일년도 안돼 법학과와 결혼시키는 것으로 그녀의 생애를 묶어 매었다. 절대 평범하지 않게 자라던 안된다고 딸을 키워놓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강단에 서는 지극히 평범한 생애를 요구했다. 겉과 속이 다른 ‘전봉덕’의 ‘자아’와는 다른 ‘겉’과 ‘속’이 같은 ‘전혜린’을 키워 ‘자신’의 ‘자아’를 ‘전혜린’의 ‘자아’로 대체하려던 그의 이기심을 사랑이라 착각하며 살아온 전혜린이 어떻게 정직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녀는 사춘기 시절부터 ‘절대 평범해선 안 된다’라는 명제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그녀의 내면은 ‘자아’로 가득차 있었고 사회, 민족, 사명, 책임 대신 자기 자아의 광기적인 몰두, 극단적인 나르시즘이 주는 카타르시스에 빠져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자신이 말하면 무엇이든 이루어 해준 ‘아버지’의 지나친 보호와 애착은 그녀로 하여금 전지전능한 아버지의 ‘나르시즘’을 닮게 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의 나르시즘에 상처를 주었고 어른이 되기를 강요했다. 결혼과 엄마, 교수라는 평범해지는 자신의 삶이 이뤄지면서 그녀는 늘 죽음을 생각하며 되뇌었다. 결국 그녀의 뜻대로, 그녀의 죽음으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생’으로 끝을 맺었다.

30살이 되어서야 어린 제자와 사랑을 통해 아버지에게 대항해보는 사춘기를 처음 겪은 것은 아닐까? 그것마저 좌절되면서, 말 잘 듣는 딸이 되어 위선적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퇴행이 죽기보다 싫었던 것은 아닐까?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생애를 특별하게 지켜야 했던 그녀의 유아적인 집착은 그녀 아버지의 특별했던 애착과 너무나 닮아있다. 그래서 그녀의 자존감은 겉만 있고 속이 없다. 속이 비어 있는 자존감이 그녀를 죽였다.

“보스톤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 120만원, 무식제 라이네이트 80만원 → 60만원,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수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피그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피그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1:1 전문관리와 오가마의 홈 케어, 스킨 케어, 스킨 케어, 스킨 케어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감리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감리보습케어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들면 겪을 수 있는 피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에피그만의 특별한 케어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추세요!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능장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복원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700만원 → 5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 600만원	메쉬 리프트 4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200만원 → 150만원	하안검 200만원 → 150만원	중안면 거상 300만원 → 200만원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행사기간

2014년 12월 ~ 2015년 2월

해외 의료 사업 팀장 김수남

HURAM
www.huramkorea.com
휴람의 네트워크형 전문 의료 서비스

미국문의: 818.331.0401
이메일: huramceo@huram.kr

카카오톡: 010.3469.4040
한국문의: 82.70.4141.4040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60)

투자로 두(2) 배 증가

미국에 이민 와서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몸도 예전과 같지 않음을 자주 느낍니다. 은근히 노후가 걱정됩니다. 여기에 평균수명은 계속 길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은퇴기간이 이, 삼십 년이라는 오랜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50이면 일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자그마한 노후자금 이 은퇴하기 전까지 두 배가 되기를 희망하며 공격적인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할까 생각해 봅니다. 수익률을 높게 하려고 주식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식에 집중투자는 그만큼 위험성이 많아집니다.

은퇴하기 전 노후자산을 두 배로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한 가정의 연 수입이 \$100,000이고 나이 50이 될 때까지 \$500,000을 은퇴 자금으로 모았다고 가정합시다. \$50만 불을 주식에 60% 그리고 채권에 40% 투자해서 연 수익률 6%를 받는

다고 가정하면 10년 후 \$900,000이 노후자금으로 형성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한 달에 \$1,000씩, 즉 일 년에 \$12,000을 10년 동안 더 투자하면 은퇴자금이 \$160,000으로 늘어납니다. \$90만 불과 \$16만 불을 합하면 은퇴 나이 60에 \$100만 불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같은 조건에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주식에 90%와 채권에 10%를 투자한다면 투자금액은 \$110만 불 이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위의 예는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언제 하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주식시장이 2007년 10월 최고점에서 2009년 3월 폭락했습니다. 주식에 90% 그리고 채권에 10% 투자된 포트폴리오는 45% 하락합니다. 반면에 주식에 60%와 채권에 40%로 형성된 포트폴리오의 하락은 29% 하락입니다.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오르고 내

림을 반복했으며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주가가 \$100이었던 것이 50% 하락하면 \$50으로 떨어집니다. 그 후 가격이 내려간 비율 그대로 50% 증가하면 주가가 \$75가 됩니다. 원금 \$100으로 되기 위해서는 떨어진 비율 두 배인 100%로 증가해야만 합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자 수익보다 투자 위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젊을 때 다시 말해 수입이 있을 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일시적으로 마음은 불안하지만,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가 목적에 있거나 이미 은퇴한 상황에서 겪는 주식시장 하락은 두려운 마음에 싼 가격으로 팔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실제 투자 손실로 이어집니다.

은퇴하기 전 노후자금을 두 배로 만드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저축을 더 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500을 더 투자하며 \$1,500이 됩니다

. 일 년에 \$18,000을 10년간 투자하면 \$200,000 이상이 되므로 은퇴할 때 \$110만 불 이상이 됩니다.

주식 90%와 채권 10% 투자로 \$110만 불로 늘어날 수 있지만 많은 투자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성은 거의 반으로 줄이면서 매달 \$500씩 더 투자하면 같은 \$110만 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이 다가오면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투자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위험성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적인 투자 손실은 계

획했던 은퇴 시기를 미루거나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위험성을 적게 하며 안전하게 투자하는 최고의 방법은 저축(Saving)을 더 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나의 포트폴리오가 얼마만 한 영향을 받는지를 고려한 투자가 제대로 하는 투자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규정 (2014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고의성 없는 경우(non-willful), 벌과금 대폭완화

IRS는 기존의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규정을 개정해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해외계좌신고의무)’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사실상의 사면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고의가 아니라 (non-willful) 기본 전제하에서 출발하지만, 가산세 (penalties)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또는 5% 가산세만 내고 과거의 미신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2014년도에 바뀐 내용은?

기존의 ‘해외계좌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규정은 ①미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Non-resident)으로서 ②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고(Non-filer) ③누락세금이 \$1,500 이하인 준법훼손위험도가 낮은(low level of compliance risk) 경우에만 적용되어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기존의 규정을 대폭완화하여 금융계좌나 소득을 누락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면(non-willfull),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US resident)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대상을 확대

하였고,

둘째; 비거주자는 세금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거주자는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됨)

셋째; 누락세금이 \$1,500 이하여야 한다는 등의 준법훼손위험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느 누구나, 미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중에서는 최근 3년간 세금 신고를 한 자가 ‘2014년 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주는 먼저 미국 내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미국 거주자 (US residents)를 위한 규정

‘2014년 간소화 규정’은 기본적으로 해외계좌나 해외소득 누락 등이 고의가 아니었다(non-willfull)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고의로 해외계좌신고나 해외소득을 누락한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 영주권자, 183일 이상 체류하여 세법상 거주자가 된 사람)가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비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만약 부부합산신고하는 경우 부부 중 한명

또는 부부 둘다 비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둘째; 최근 3년치 세금신고를 했어야 하며, 셋째;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그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해외계좌신고(FBAR)나 기타 해외 정보 제공의무(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의 혜택은?

미국내 거주자가 2014년 간소화 규정에 의해 누락된 해외계좌나 해외소득을 신고하면 세법상의 각종 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accuracy-related penalty, information-related penalty)와 ‘FBAR가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대신 누락한 해외금융자산의 5%를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로 부과합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2014년 간소화 규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나 누락된 소득을 신고하면 ①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과 ②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③ 5% 가산세(6년간의 기말잔액 중 최고금액의 5%)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5%의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는 어떻게 계산되나?

먼저, 무엇이 5% 가산세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가 적용되는 자산인지 살펴

봅니다.

① 누락된 FBAR 신고대상 금융자산(6년간)

② 누락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신고대상 금융자산(3년간)

③ 그리고 FBAR나 FATCA에 의한 신고는 했으나, 누락한 소득이 있는 금융(3년간).

따라서 FBAR나 FATCA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5%의 가산세가 계산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위에서 살펴본 가산세 적용대상 금융자산을 파악한 후

둘째; 그자산의 매년말 금액을 구하여

셋째; 이를 각 연도별로 합산한 후

넷째; 연도별 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금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무엇을 신고 해야하나?

미국 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2014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최근 3년간의 수정세금신고서(1040X)와 ② 확인서(Form14654)를 제출하면서 ③ 해외금융재산의 5%의 가산세와 ④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⑤ 더불어 최근 6년간의 FBAR 지연제출 신고를 해야합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VIP 할인!

\$29.99

(2년 약정시)

11월, 12월

VIP
할인 이벤트

기회를 잡으세요!

이벤트 기간

2014년 11월~12월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중에 가입 고객은

1년간 VIP \$29.99

1년 이후 \$34.99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하바드 진학을 위한 두번째 중요한 요소: 교외 활동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아카데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요소들 중에는 과목선정, 평점, 등수, SAT 1, 2, AP 성적, 경시 대회 입상, 섬머 참여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균형잡힌 코스 선정과 아카데미 분야에서 학교에 일정한 공헌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두번째 중요한 요소는 교외활동이다. 교외활동은 특별한 재능을 키우기 위한 깊이와 폭넓음(Depth and Breadth), 동일 활동에세 타학생들과의 비교(Comparison), 캠퍼스 영향, 활동 기간(Length of Commitment), 리더십, 외적인 증거(입상 경력) 등 학생들의 흥미를 측정한다.

하바드가 교외활동을 입학에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1. 학생들이 지적, 개인적, 교외활동적인 부분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2. 흥미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했는지? 성취도는 얼마나 되는지? 실패와 성공의 결과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3. 교외활동, 스포츠, 클럽활동, 봉사활동, 공동체 공헌 측면에서 학생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활용했는지 4. 교외활동의 질적인 측면은 어떤지, 진정으로 좋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했거나 대학 진학을 위한 활동이었는지? 리더십을 경험했는지 5. 만약 고등학교에서 가족, 일등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교외활동을 못했다면 하바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무엇을 새롭게 시도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하바드는 학생들이 동일한 활동을 깊이 있게 하는 것도 중요시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큰 것을 배우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깊이있는 활동을 한 학생들만을 선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하바드에 입학한 학생들은 마치 무언가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누구나 하는 학교 활동에 참여한 지극히 평범한 학생들이다. 하바드에 입학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도전적인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리더라는 점이다.

학교 내에서의 활동은 미약하지만 학교 밖에서 활동이 많은 학생은 하바드 입학에 큰 긍정적인 요소는 없다. 학교 내외에서의 균형잡힌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적으로 인정된 교외 활동(National Level)의 경우는 학교 성적이 우수하면 입학에 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국가적인 레벨의 경우는 디베이트, 필름, 미술, 음악, 성악, 봉사활동 등 국가적인 경시대회 입상, 국제적인 경시대회 입상, 스포츠 리쿠르트, TV, 영화, 뮤지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경험(학교내 경험이 아님)을 말한다. 이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주(State), 지역(Province), 시(City) 등의 레벨에 소속되거나 입상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 경우는 학생

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고, 학교에서도 많은 균형잡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리더쉽 역시 많이 있는 경우이다. 주로 학생회, 신문사, 스포츠 등에서 리더십이 두개 이상 있는 경우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다. 이 경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적어도 “올해 우리 학생들 중 최고다” 라는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성이 높다.

클럽활동에 등록만 하고 열정적인 참여가 부족한 경우에는 입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이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돕거나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해야 한 경우(방과 후 파트타임 일을 하는 등), 집안에서 동생이나 부모님중 한 분은 돌봐야 되는 경우는 학교 성적이 좋다면 오히려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꾸며낸 교외활동, 학교 내보다 밖에서 더 많은 활동(사실상 밖에서 많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신뢰성이 떨어짐), 리더십과 입상 경험이 없는 경우, 지속적이지 못한 활동, 양적인 부분은 많으나 질적인 부분에서 떨어진 활동, 공동체에 공헌이 미약한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리더십 경험(소수 클럽 활동 리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외부에서의 리더십 경험), 재능은 있으나 아카데미에서 조그만 경험 밖에 없는데 인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제출한 경우, 기존 선배들을 그대로 모방한 활동 등은 결코 입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된다.

“저는 최근 하바드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보스톤 근교 보딩스쿨에서 4년을 다녔기 때문에 학교가 제공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스포츠는 필드하키 4년(11학년부터 Varsity Level), 아이스하키 3년(11학년때 JV캡틴)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일요일은 아이들에게 아이스하키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우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추천서를 써주신다고 했지만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칼리지 카운셀러에게 알려 겨울학기 동안 일요일마다 두시간씩 아이들과 논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된 듯합니다. 12학년 때는 운동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겨울 동안 뮤지컬을 했습니다. 글쓰는 것이 좋아 학교 신문에 11학년 때 지원하여 Editor(11)와 Managing Editor(12)까지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리더십은 학교 투어 가이드 리더, Model UN 리더, 학교 기숙사 Proctor, 학교 학생회 임원, 개인 피아노 리사이틀과 음악으로 3M Music 상을 받았습니다. 섬머는 하바드에서 심리학, 아메리칸 대학에서 리더십 학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12학년까지 AP과목을 총 12개나 수강했기에 도저히 교외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막상 하바드에 와보니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총 학생 수가 3만 6천명이 넘는, 메릴랜드 주와 워싱턴 DC 지역 일대에서 가장 큰 대학이며, 메릴랜드 주립 대학교 시스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나 미시건 대학교 (University of Michigan) 만큼 한국 학부모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 주립대학교 중에서 20위에 랭크 되어 있고, 경영 정보 시스템(MIS) 학과와 우주항공학을 포함해 10위권 안에 든 학부/대학원 프로그램도 20개나 된다. 범죄학 전공은 전미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미국 언론인들이 뽑은 저널리즘(신문방송) 대학 10위에 랭크 되기도 했다. 특히 대형 연구 시설을 기반으로 연구 활동이 활발한데, 워싱턴 DC와 가깝다는 지리적 잇점 덕분에 미 연방 정부 산하의 여러 연구소들과 협력 관계에 있다. 실제로 메릴랜드 대학교의 많은 교수진이 미국 국립 보건원(NIH)과 미

국 항공우주국(NASA),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농무부(USDA) 등에서 연구비와 지원을 받고 있다. 대형 연구 대학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소자본 창업에도 열성을 기울이고 있어서 매주 'Innovation Fridays' 행사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수진과 외부 기업 인사 등에게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 받게 된다. 또 매년 봄마다 교내 창업 경시대회를 열어 25만 달러 상당의 사업 지원금을 수여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Sergey Brin과 운동복 회사 Under Armor의 창업자 Kevin Plank 등이 UMDCP 출신이다.

Washington and Lee University

버지니아 주 렉싱턴 시에 위치한, 총 학생 수 2,200명 (학부 1,800명, 대학원 과정 400명) 정도의 작은 사립 교양대학 (Liberal Arts College)이다. 1749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에서 9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이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당시로서는 거금인 2만 달러를 기부하고, 남북전쟁 때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의 명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원래 Augusta Academy였던 학교의 명칭도 Washington and Lee로 바뀌게 되었다.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전미 교양대학 14위며, 학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Best Value School 9위

유명하지 않은 명문 대학교 (2)

기도 하다. 하지만 대학 순위 이상으로 워싱턴 앤 리 대학 출신 학생들의 의학 대학원 합격률이 90%를 넘는 등 경영 대학원, 법학 대학원(로스쿨) 등의 전문 대학원 진학률이 굉장히 높다. 학생들의 자유도도 매우 높는데, 감독 없이 시험을 치르거나 기말 고사를 원하는 날짜에 치를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시험을 집에 가져가도 되게 하는 식의 수업이 많다. 이는 총장이었던 Lee 장군이 강조한 '학생의 신사도 (Code of Honor)'에서 기반된 전통으로, 학생의 신념을 믿는 대신 학생의 거짓말이나 표절, 그 어떤 부정행위라도 발각될 시 바로 퇴학 조치로 이어진다.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C Berkeley나 UCLA의 그림자에 밀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미국 최고의 수의학과와 환경과학과, 농대가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중에서 가장 넓은 22.2 평방 킬로미터의 대학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UC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 공항이 있다. 처음에는 버클리의 대학 농장 및 농과대학 분교로 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의학 대학원과 법학 대학원, 간호대 등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 중에서 가장 많은 6개의 전문 대학원 과정이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부는 가장 유명한 농업과 환경 과학 대학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Sciences)을 필두로 생물학 대학(Biological Sciences), 공대 (Engineering), 문리대 (Letters and

Science)의 네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생물학 중에서도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연구인 생태학과 진화 생물학은 미국 3위, 농업 과학은 7위다. 미국 학술원 (National Academy of Science) 회원 23명을 자랑하는 공대와 수소폭탄의 아버지 물리학자 Edward Teller가 창설하고 이끈 응용과학과도 물론 그 명성을 여전히 떨치고 있다. 학교 규모에 걸맞게 종합 병원, 미술관, 수목원, 농장, 방송국, 대규모 공연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연구비 지출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발표한 대학 연구 개발비 조사에 따르면 농업분야에서는 전미 1위, 총 연구비 지출도 7조 달러를 넘어서 미국내 21위에 해당한다. UC Davis는 UC 중 유일하게 졸업 조건으로 작문 시험을 의무화하기로도 유명하다. 졸업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논문 형식의 에세이를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의 종합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따로 훈련하지 않는 점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다음 칼럼에 계속)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worldpay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훌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겨울방학 단기집중 프로그램

기간: 12월 20(토)~31(수) 11일간
(12월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강)

SATI/SSAT/TOEFL class

-각 파트별 균형잡힌 시간배분
(CR:6일, W:3일, Math:2일)
-실전문제풀이중심의 수업
-종일 프로그램(9:00-5:00)
-실력있는 강사진

SAT2 Subject test prep

Math IIC,Bio,Chem, Physics

전과목 개인 수업 가능

2016 College Process

대상: 11 학년
모집기간: 2015년 2월 말까지

경시대회준비

수학 경시 준비(AMC/AIME)

외국어 경시 준비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생물, 물리, 화학)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